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일제강점기 제주도 개량서당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

정 선 영

2007년 8월

일제강점기 제주도 개량서당 연구

지도교수 권인혁

정선영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7年 6月

鄭宣寧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印)

委 員 _____ (印)

委 員 _____ (印)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2007年 7月

**The studied of Improved-Seodang in Jeju
under the rule of Japanese imperialism**

Jung Sun-young

(Supervised by professor Gwon In-Hyeok)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2007. 6

Department of Histor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국문 초록〉

일제강점기 제주도 개량서당 연구

정 선 영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 전공

지도교수 권 인 혁

제주의 서당교육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전해지지 않고 있으나, 서당은 근대교육기관이 설립되기 전까지 가장 오랜 전통을 지닌 서민들을 위한 초등교육기관으로 도민의 전통과 문화를 형성·발전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하여 왔다

서당은 19세기말 근대적 교육의 전개와 더불어 변화가 촉구되는데, 특히 일제 시대에 들어서면서 그 형태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교육내용 및 성격 면에서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 그리하여 구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재래서당과 새로운 시대성에 적응한 개량서당으로 구분되어진다.

제주도 개량서당은 대체로 일제의 탄압으로 사립학교가 폐교되거나 그의 설립이 어려울 때 그리고 사설학술강습회에 대한 탄압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설립되었으며, 지역적 사정에 따라서는 초등교육 시설이 전연 없거나 부족한 경우 설립되기도 하였다.

제주도내 개량서당은 대부분 민족자체가 능동적으로 설립한 경우가 많았으며 경영방식에 있어서는 대체로 공동운영의 형태를 띠었다.

개량서당은 근대교육의 교과를 도입하고 교원도 근대교육을 받은 자들로 구성되어 있어 국민교육과 문맹퇴치 그리고 민족의식의 양양에 공헌을 하였다. 특히 개량서당은 교육시설이 미비하고 의무교육이 실시되지 못한 시대에 있어서 가장 비중이 큰 보조초등교육기관의 역할을 담당하며 농촌지역이나 빈한한 서민층에 게까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렇게 개량서당이 민족교육 및 초등교육의 역할을 수행하며 그 수가 급증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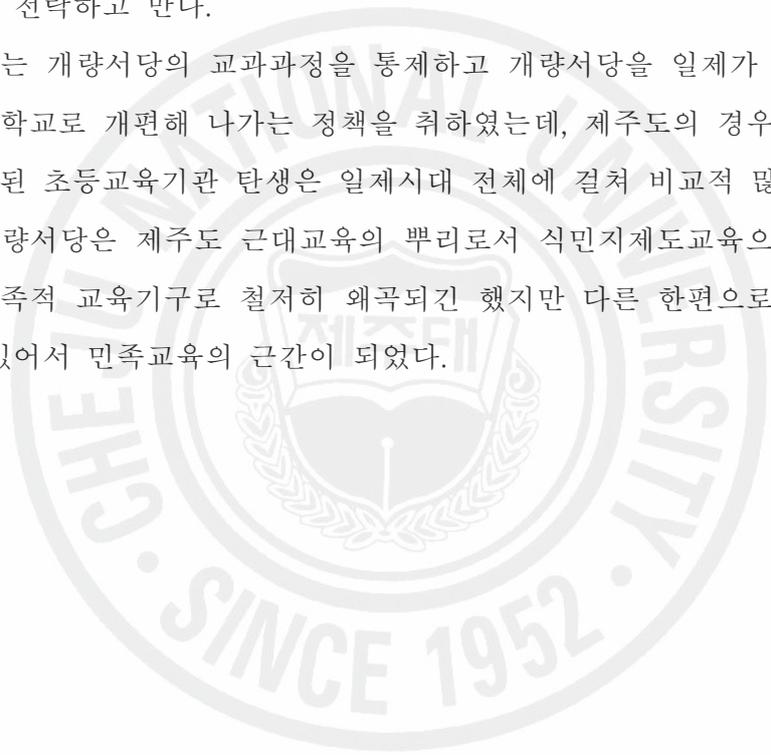
게 되자 일제는 「서당규칙」을 발표하여 서당에 대한 탄압을 가하였다.

일제의 서당정책은 강·온 양면의 이중적 형태로 진행되었는데 기본방침은 일제의 식민지교육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일제는 민족주의 색채가 있거나 식민지교육정책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되는 서당에는 탄압을 가하였으나, 그 외의 서당에 대해서는 식민지주의 교육방침을 주입시킴은 물론 경비를 지원하여 초등교육기관으로 활용하였다.

이에 서당은 민족교육의 보루로서의 기능이 상실되고, 공립보통학교나 간이학교와 마찬가지로 「조선인을 충성스럽고 선량한 일본인으로 육성」시키는 동화교육의 도구로 전락하고 만다.

또한 일제는 개량서당의 교과과정을 통제하고 개량서당을 일제가 직접 지배하는 공립보통학교로 개편해 나가는 정책을 취하였는데, 제주도의 경우 개량서당을 모체로 설립된 초등교육기관 탄생은 일제시대 전체에 걸쳐 비교적 많았다.

이렇듯 개량서당은 제주도 근대교육의 뿌리로서 식민지제도교육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반민족적 교육기구로 철저히 왜곡되긴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주교육의 저류에 있어서 민족교육의 근간이 되었다.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2
3. 연구방법	3
II. 일제강점기 개량서당의 설립과 역할	5
1. 서당교육정책	5
2. 개량서당의 설립과 특징	13
3. 교육과정 성격	20
4. 개량서당의 역할	25
III. 제주도 개량서당의 실태	30
1. 일제강점기 제주도의 실정	30
2. 개량서당의 설립	37
3. 개량서당의 운영 실태	51
4. 개량서당의 변천상	59
IV. 결 론	69
참고문헌	71
Abstract	75

표 목 차

1. 본 문

<표 1> 1930년대 개량서당의 학생수	15
<표 2> 북부지방의 서당현황	16
<표 3> 1930년대 각도별 서당 평균 학생수	17
<표 4> 일제강점기 면수의 증감 분석	19
<표 5> 1935년 도별 인구상황	19
<표 6> 『동몽선습』 이본 일람표	22
<표 7> 서당교사 2인 이상의 서당 수	23
<표 8> 공립보통학교 교사의 월평균 급료	24
<표 9> 1920년도 각종 보통학교 입학자 출신별 분포상황	26
<표 10> 일본 도항자수 누년 비교표	31
<표 11> 도항자 송금액 표	31
<표 12> 개화기 설립된 제주도 근대교육기관	35
<표 13> 학교별 교육자 수	36
<표 14> 1930년 제주도내 서당통계	39
<표 15> 제주도내 설립연도별 개량서당 수	42
<표 16> 제주도서당일람	50
<표 17> 제주도 개량서당의 운영실태	52
<표 18> 里民공동경영의 서당	58
<표 19> 개량서당이 근대학교로의 전환	60
<표 20> 개량서당이 사립보통학교로의 전환	64
<표 21-1> 제주도 보통학교 일람(1927년 현재)	65
<표 21-2> 제주도 공립심상소학교 일람(1938년 현재)	65
<표 22> 개량서당이 공립보통학교로의 전환	66
<표 23> 제주도 간이학교 일람	67
<표 24> 개량서당이 간이학교로의 전환	68

2. 각 주

주 29) 남부지방의 서당 상황	17
주 46) 경기도 서당교사의 교육정도 (1935년 현재)	24
주 80) 개량서당의 도별 상황	40
주 82) 제주도 서당교사 수에 의한 서당 구분	41
제주도 서당 학생 수에 의한 서당 구분	41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서당은 고구려의 경당을 기원으로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거쳐 개국 후 근대교육시설이 설립되기 전까지 서민교육을 담당해온 유일한 사설·초등교육기관으로 그 명맥을 이어 왔다.

이처럼 오랜 기간동안 유지되어 온 서당은 19세기말 근대적 교육의 전개와 더불어 변화가 촉구되는데, 특히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일제의 식민지주의 교육정책과 이에 대한 민족적 항쟁운동 및 민족의 교육열 등 당시의 역사적 시대적 배경의 영향으로 서당은 그 형태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교육내용 및 성격 면에서도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

그리하여 당시의 구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재래서당과 새로운 시대성에 적응하여 일제하 서당교육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개량서당으로 구분되어진다.

개량서당은 근대교육의 교과를 도입하고 교원도 근대교육을 받은 자들로 구성하여 근대교육시설이 미비하고 의무교육이 실시되지 못한 시대에 있어 가장 비중이 큰 보조초등교육기관의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농촌지역이나 빈한한 서민층에게까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이점으로 인해 국민교육과 문맹퇴치, 민족의식 양양에 큰 공헌을 하였다.

제주도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상으로 한국에 있어 특수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부지런하고 검소한 생활습관과 아울러 교육열과 교육수준이 높다고 평가받고 있다.

제주의 서당교육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전해지지 않고 있으나, 서당은 신식학교가 설립되기 전까지 가장 오랜 전통을 지닌 서민들을 위한 초등교육기관으로서 도민의 전통과 문화를 형성·발전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하였던 제주교육의 뿌리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당교육이 도민에게 미친 영향과 비중에 대해서는 아직도 학구적인 연구 없이 과소평가되어 이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불모상태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일제하 개량서당의 성격과 기능을 고찰하여 개량서당이 민족사상 그리고 교육사상 어떤 역할을 담당하였는가를 구명하고 제주의 사회적·문화적·경제적·지리적 환경이 이 지역 서당교육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제주도 개량서당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일제강점기 제주도 서당교육이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그 특징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은 이 지역의 교육현상을 규명하는데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교육사적 측면에 입각하여 제주도 개량서당의 실태를 분석하고 그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지방교육사 연구의 기반을 형성함은 물론 이 지역의 교육문제와 현상을 이해하는데 밑거름이 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한 시대의 역사적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시대의 사회적·문화적 배경을 이해해야 한다. 특히 교육은 「인간의 이해」라는 사실에 있어서, 당시의 사회상이나 문화의 이해가 수반되지 않은 단순한 사실의 나열만으로는 의미가 없다 하겠다.

현재까지의 교육사 연구는 실증사학의 입장에서 과거에 행해졌던 교육적 사실-교육의 이념, 목적, 제도, 내용 등-의 인식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사학 연구였다. 그러나 교육은 그때의 사회적 상황이라는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며 사회의 변동과 함께 변화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¹⁾

즉, 교육사란 먼저 그 주된 대상인 교육의 의미를 규명해야 하는데, 교육의 의미는 한 사회 내에서 일어나는 문화적 경험, 사회적 배경 등에 의해 변화하므로 그 시대의 사회·문화적 상황을 연구하는 일 또한 교육사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1) 정순목 외, 『한국교육사 연구의 새 방향』 (집문당, 1982), pp.19~20.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교육사의 사회적 접근이 이루어 졌을 때 비로소 과거의 교육적 사실들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그 가치를 재평가할 수 있으며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제강점기 근대교과를 도입하여 국민교육과 문맹퇴치, 그리고 민족의식 양양에 큰 공헌을 한 개량서당을 당시 사회적 상황과 연결시켜 설립배경, 설립이후의 교육성격 및 사회적 역할 등을 밝히고 제주도의 지정학적 생태 속에서 도내 개량서당의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제주도가 지닌 문교사적 의의를 재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도 개량서당의 실태를 분석하여 개량서당이 제주도민에게 미친 영향에 대하여 밝히는 것으로 하였으며,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일제강점기 서당교육정책을 통해 일제가 서당에 대해 취했던 태도와 그로 인해 변천된 서당교육 과정을 살펴보고,

둘째, 개량서당의 설립배경 및 교육과정 성격을 통해 개량서당의 역할을 고찰하며,

셋째, 제주도 개량서당의 설립·운영의 특징과 변천상을 분석하여 개량서당이 제주도민에게 미친 영향을 밝히고자 한다.

3. 연구방법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대상기간은 일제 식민지주의 교육시기로 일본제국주의가 한국을 강점하기 직전인 1905년 통감부 설치로부터 해방된 1945년까지로 하였으며, 이 시기 개량서당의 실태와 영향을 제주도를 중심으로 고찰해 보았다.

2) 연구 자료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일제강점기 서당교육에 관계되는 기존 문헌을 중심으로 대상기간 동안 내 서당교육의 변화를 기술적 방법을 통하여 고찰하였다.

연구 자료로는 조선총독부 『관보』, 『통계연보』를 비롯하여 제주도내 향토지 및 서당에 관한 문헌, 신문, 선행논문 등을 수집 분석하였다.



II. 일제강점기 개량서당의 설립과 역할

1. 서당교육정책

일제는 식민지화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 시정개선(施政改善)을 핑계 삼아 식민 교육정책 추진에 힘을 기울였다. 일제의 서당교육정책은 한국인에게 천왕제사상을 주입시키고, 일본어를 습득시킴으로써 식민정책에 순응·복종하는 「충직하고 선량한 일본인 육성」에 있었다.

그러므로 서당의 교육정책도 이러한 조선총독부교육의 근본정책과 연관 지어 고찰 할 필요가 있다. 조선총독부의 서당교육정책을 「서당규칙」을 중심으로 한 법규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제1차 서당교육정책기 (1908년~1929년)

제1차 서당교육정책기는 1908년 총독부시기로부터 「서당규칙」이 개정되기 이전까지로 일제가 서당에 유화정책과 통제정책을 병행한 시기이다.

서당의 개혁은 1908년(융희 2년) 8월 학부훈령 제3호 「서당관리에 관한 건」이 공포되면서 원칙적으로 시도되었다.

「서당관리에 관한 건」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²⁾

1. 서당이 있는 곳에 보통학교가 있으면 보통학교에 입학하도록 할 것.
2. 학과는 한문을 주로 하더라도 국어(일어)를 같이 가르치도록 할 것.
3. 한문교수는 음독(音讀)만 힘쓰고 어의(語義)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고 지식 계발과 덕성함양에 이바지하지 못하고 있으니 지덕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교수방법을 개선할 것.
4. 교수시간은 학동의 신체 및 지력에 비추어 적당히 줄일 것.

2) 노영택, 「일제하 서당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3), pp.31~33.

5. 일반 서당은 학동의 규율 및 풍기에 대하여 경시해 왔으나 앞으로의 관리, 훈도에 유념하여 어릴 때부터 좋은 습관을 기르도록 할 것.
6. 교실의 규모가 협소한 서당은 학동들을 교대로 출입시키고 채광과 통풍을 원활히 하며 청결과 정돈에 힘쓸 것.

위의 「서당관리에 관한 건」은 강제성을 띤 법규는 아니지만 일제가 서당정책의 기본방침을 처음으로 표명한 것으로, 주로 교수용어의 개량과 교수방법의 개량, 교수시간의 단축을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한문이외에도 가능하면 국어(일어)를 더 가르치도록 하고 있다. 즉, 여기서 말하는 개량이란 민족교육을 위한 보완이 아니라 일본어의 보급을 위한 것으로 서당에 약간의 개량을 가하여 그대로 초등교육기관으로 존치시키려는 의도에서 취해진 것이었다.

이렇듯 이 시기 일제의 서당정책은 다른 사립학교에 대한 강압에 비하여 비교적 온존하였는데, 그것은 서당의 수구성을 유지시킴으로써 한국인의 근대화를 저지하고 오랜 전통과 많은 수의 서당을 일시에 전폐시키기 어려웠기 때문이었다.³⁾

이렇듯 서당에 대한 온존책으로 민족의 근대화를 저해하려는 일제의 의도는 1921년 부산교육회가 조선교육조사위원회에 제출한 진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한문서당은 전국을 통하여 2만5천여가 있으며 그 아동이 실로 30만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현대교육에 부적응한 서당을 철폐치 아니하며 개량도 아니하며 반면으로 유교를 장려함은 조선인 식자(識者)로 그 뜻을 이해하기 어려운 바이다.⁴⁾

일제는 한민족의 근대화 길을 막기 위해 서당을 보호하였는데, 이러한 정책의 이유 중 하나는 유교에 있는 지배·복종의 상·하관 및 차별관이 일제가 한국을 지배하는데 있어 유리한 논리적 근거로 이용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1910년대에 들어와 사립학교에 대한 일제의 통제가 강화되자 민족선각자들은 서당을 통하여 민중을 교육시키고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하였다. 그리

3) 노영택, 『일제하 민중교육 운동사』 (탐구당, 1979), p.89.

4) 『동아일보』, 1921년 5월 4일자.

하여 1913년부터 1918년까지 5년간 전국의 서당과 학생 수는 점차 증가하여 보통학교 학생수보다 많아졌다. 이에 일제는 1918년 「서당규칙」을 공포하여 서당에 통제를 가하기 시작한다.⁵⁾

1918년 2월 21일 공포된 「서당규칙」은 다음과 같다.⁶⁾

제1조: 서당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구비하여 부윤(府尹), 군수(郡守) 또는 도사(島司)에게 신고할 것.

1. 명칭 및 위치
2. 학동의 정수
3. 교수사항 및 교수용 도서명
4. 유지방법
5. 개설자 및 교사의 성명 및 그의 이력
6. 개설 년 월 일
7. 계절을 정하여 수업을 하려면 그 계절

전항의 각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부윤, 군수 또는 도사에게 신고할 것.

(단, 개설자, 교사의 변경 시는 이력서를 첨부할 것.)

제2조: 서당을 폐지 할 때는 개설자가 지체 없이 그를 부윤, 군수 또는 도사에게 신고할 것.

제3조: 서당의 명칭에는 학교와 유사한 문자를 사용할 수 없음. 서당은 명칭을 표기한 표찰을 보기 쉬운 장소에 제시할 것.

제4조: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진 자 또는 성행(性行) 불량자는 서당의 개설자 또는 교사가 될 수 없음.

제5조: 다음의 경우에 있어서 도장관(道長官)은 서당의 개폐 또는 교사의 변경 기타 필요한 설치를 명할 수 있음.

1. 법령의 규정에 위반될 경우
2. 공안을 해치거나 또는 교육상 유해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6조: 서당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윤, 군수 또는 도사의 감독에 속함

5) 손인수, 『한국교육사연구(상)』 (문음사, 1998), p.486.

6) 이항제, 「일제의 서당교육정책에 관한 고찰」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3), p.30.

부칙

본령은 발포한 날로부터 시행함.

본령 시행 시 존재하는 서당은 본령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1조의 사항을 부윤, 군수 또는 도사에게 신고할 것.

일제의 의도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서당규칙」에 관한 시행령이라 할 수 있는 「서당규칙 발포에 관한 건」을 살펴보고자 한다. 1918년 2월 21일 조선총독부 제9호로 발포한 「서당규칙 발포에 관한 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⁷⁾

1. 서당에 대한 급격한 개선을 촉진하거나 그 폐함을 강제하는 일은 종래와 같이 피할 것. 특히 지역사정과 서당실정에 상응한 개선을 지도할 것.
2. 서당교육에서 한문 소독에 그치지 말고 일어 및 산술을 교수할 것.
3. 서당의 아동 수는 30명을 초과하지 말아야 하며 특히 서당명의로서 사립학교 규칙의 적용을 면하려는 것과 같은 일 등은 단속에 힘쓸 것.
4. 서당의 교사 중에 편견 고루하여 시세를 모르는 자가 있다. 평소 그 사상 계발에 힘쓰고 동시에 언동에 주의하고 상응한 단속을 게을리 하지 말 것이며, 공립보통학교장으로 하여금 임시 서당의 시찰을 행하여 자주 서당의 교사를 모아 강습, 기타 방법에 의해 필요한 사항을 훈화하는 등 지도에 힘을 다할 것.
5. 서당에서 교수하는 서적은 이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명시하여 그 가운데서 선택 사용케 하고 불량서적을 사용하는 일이 없게 할 것.

위의 주요내용은 한글이나 한국사를 교과목에서 제외시키고 대신 일본어를 가르치도록 하였으며, 서당 설립인가와 폐쇄에 관한 권한을 지방관에게 전권 부여하여 교사에 대한 지도·감시·감독 등 자의적인 권한을 ‘無所不爲’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일제가 서당에 대한 통제를 점차 가하게 된 이유는 1911년의 「사립학교 규칙」제정과 1915년의 「사립학교 규칙」개정 등 사학에 대한 탄압이 강화로

7) 조선총독부, 『관보』 제1661호(총독부훈령 제9호), 1918년 2월 21일자.

한국인의 교육열이 서당설립으로 나타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자연적으로 폐지될 것으로 믿었던 서당이 도리어 증설되고 서당을 통하여 근대교육을 실시하는 경향이 높아졌기 때문이었다.⁸⁾

이에 일제는 서당에 대한 종래의 방침을 변경하여 「사립학교 규칙」의 적용을 피하여 민중을 교육시키고,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서당에 대해서도 탄압을 가하였던 것이다.

특히 탄압의 주된 대상은 내부적 근대화를 이룬 이른바 개량서당이었다. 대표적인 탄압의 사례를 보면 1925년 4월 전북 고창에서는 각 학교 학생모집에 방해가 된다하여 무신고 서당 및 「서당규칙」을 위반한 서당에 대해 폐지계획을 수립하였으며⁹⁾, 1925년 만주지방에 있어서도 일제는 중국의 행정력을 동원하여 서당을 폐지시켰다. 즉 중일협약이 체결된 이후 간도에 있는 한국인에 대한 탄압이 심해진 가운데 한국인이 설립한 서당과 사립학교에까지 폐교명령을 내렸던 것이었다.¹⁰⁾

이상의 1908년~1929년간의 제1차 서당교육정책기를 개관해 보자면 초기에 일제는 한국의 근대화를 저해하고자 하는 의도와 오랜 전통을 가진 서당을 일시에 폐쇄시키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화정책을 취하였다.

그러나 한국인의 교육열이 사립학교의 탄압을 피하여 설립이 용이한 서당으로 발로되자 1918년 「서당규칙」을 공포하여 서당에 통제를 가하기 시작한다. 일제는 이후 1920년대 교육구국운동이 고조로 전국 각지에 교육기관이 설립되고 민족교육이 전개되자 1929년 「서당규칙」을 개정하여 서당에 대한 통제를 한층 강화하기에 이른다.

2) 제2차 서당교육정책기(1929년~1945년)

제1차 서당교육정책기가 유화정책과 통제정책이 병존한 시기였다면 1929년~

8) 노영택, 『일제하 민중교육 운동사』 (탐구당, 1979), p.84.

9) 『동아일보』, 1925년 4월 13일자.
(당시 전북 고창군에는 15개면에 서당은 63개소, 학생수는 538명이었다.)

10) 『동아일보』, 1925년 9월 15일자.

1945년간의 제2차 서당교육정책기는 강력한 탄압과 장려의 이중정책이 실시된 시기이다.

1920년대에 교육구국운동에 의한 교육열 고조로 민족선각자들에 의한 교육기관설립운동이 전개되자 일제는 1929년 「서당규칙」을 개정하여 서당에 강력한 통제권을 가한다.

1929년 6월 17일 조선총독부령 제55호로 개정된 「서당규칙」은 다음과 같다.¹¹⁾

제1조. 서당을 개폐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에 따라 도지사(道知事)의 인가를 받을 것.

1. 명칭 및 위치
2. 학동의 정수
3. 교수사항 및 교수용 도서명
4. 유지방법
5. 개설자 및 교사의 성명 및 그의 이력
6. 개설 년 월 일
7. 계절을 정하여 교수를 하려면 그 계절

전항 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5호에 제시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제2호, 제6호 및 제7호에 제시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신고할 것.

제1조의 2

서당에 있어서 일본어, 조선어, 산술 등을 교수하는 경우 그 교과서는 조선총독부 편찬 교과서를 사용할 것.

제2조. 서당을 폐지할 때는 개설자가 지체 없이 그를 도지사에게 신고할 것.

제3조, 제4조, 제5조는 동일(同一)

제6조. 서당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지사의 감독에 속함.

부칙

본령은 발포한 날로부터 시행함

본령 시행 시 존재하는 서당은 본령에 의해 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함

일제는 이와 동시에 「서당규칙 개정에 관한 건」을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

11) 조선총독부, 『관보』 제736호 (조선총독부 제55호), 1929년 6월 17일자.

은 다음과 같다.¹²⁾

1. 개설허가신청 때 구신(具申)한 사항의 조사를 주도하게 할 것.
2. 학교와 강습회와의 구별에 유의할 것.
3. 설비 및 교육의 내용에 유의할 것.
4. 정의의 방법에 의하여 국민도덕에 관한 사항을 가르칠 것.
5. 학동으로부터 비용을 받는 것은 상관없으나 이것 때문에 학부모의 부담을 무겁게 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1929년 개정된 「서당규칙 개정에 관한 건」은 강경책을 위한 법령이나 다름없었다. 일제는 서당을 학교 및 강습회와 엄격히 구별하여 서당에서는 학교와 유사한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다만 국민도덕에 한하여서는 보통학교와 동일하게 교수하도록 명시하였다..

이상에서 1918년 제정된 「서당규칙」과 1929년 개정된 「서당규칙」에서 발견되는 차이는 1918년 제정 당시에는 개설에 관한 신고나 감독이 부윤, 군수 또는 도사의 직무로 되어 있었으나 1929년에 개정된 「서당규칙」에서는 서당을 도지사 인가제로 하여 그 설립을 어렵게 하고 규정에 미비한 기존의 서당을 폐쇄하는 등 탄압이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일제는 서당설립 허가신청이 접수되면 「서당규칙」개정에 의거하여 원칙적으로 허가는 하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통제하였다. 한국인의 기부금모집행위는 「기부금품모집취재규칙위반(寄附金品募集取締規則違反)」이라 금지하여 서당의 신설 및 증설을 방해하였으며,¹³⁾ 낙성식까지 마친 서당에 허가를 지연시켜 서당의 교육활동을 무작정 기다리게 하였다.¹⁴⁾ 또한 서당 인가 시에도 서당교사가 군 학무계(學務係)에서 주관하는 서당교사 강습회에 반드시 참가하도록 하였고,¹⁵⁾ 교사의 사상문제¹⁶⁾ 및 서당의 무허가를 구실로 돌연

12) 조선총독부, 『관보』 제739호, 총독부훈령 제25호, 1929년 6월 17일자. ; 『동아일보』, 1929년 6월 22일자에서 재인용.

13) 『동아일보』, 1930년 9월 20일자.

14) 『동아일보』, 1934년 3월 17일자.

15) 『동아일보』, 1934년 7월 24일자.

16) 『동아일보』, 1934년 11월 18일자.

서당에 대한 폐쇄를 명령하는 등 서당의 경영을 수시로 방해하였다.

그러나 일제가 서당에 대하여 탄압정책만을 실시한 것은 아니었다. 일제는 그들의 식민지교육정책에 부응하지 못한 서당에 대해서는 탄압을 가하였으나, 문제성이 없는 서당은 초등교육기관으로 활용하여 부족한 초등교육 시설을 확충하려 하였다.

「내선일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문맹퇴치를 강력히 추진해야 하였기 때문에 부득이 서당장려와 개조방침을 서둘렀던 것이니 일제 침략 초기의 서당보호 목적과는 다른 것이 없다. 그러면서도 탄압을 계속한 것은 식민지 교육정책에 위배된다고 생각되는 서당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 점에 있어서는 초기의 그것과 공통점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1935년에만도 개량서당이 천여개나 폐지되었다.¹⁷⁾

이렇듯 일제는 서당교육정책을 획일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민족주의적 색채가 있거나 식민지교육정책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되는 서당에는 탄압을 가하였지만, 그 외의 서당에 대해서는 교육내용의 개선, 서당교육에 대한 강습 등으로 식민지주의 교육방침을 주입시키고 경비를 지원하여 초등교육기관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¹⁸⁾

또한 일제는 서당을 간이학교로 개편시키기도 하였다. 1931년 6월 17일 제6대 조선총독으로 부임한 우가키 가즈시게(宇垣一晟)는 초등교육의 확충을 강구하여 농촌간이학교를 창설하였는데 이는 기존의 서당을 부족한 초등교육 시설로 이용하면서, 일제의 식민지 교육정책을 수행하는 교육기관으로 활용하기 위함 이었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서당을 간이학교로 개편 흡수시킴으로써 식민지적 농촌진흥을 위한 초등교육기관의 설립을 큰 경비를 투입하지 않고서도 달성할 수 있었다.

이렇듯 1929년~1945년간의 제2차 서당교육정책기는 민족 교육적 서당에 대한 강력한 탄압과 함께 일부 서당에 대해서는 일제의 교육방침수행에 이용하기 위

17) 『동아일보』, 1936년 2월 1일자.

18) 노영택, 『일제하 민중교육 운동사』 (탐구당, 1979), p.92.

하여 활용책과 개편책을 강구하였다.

2. 개량서당의 설립과 특징

사립학교가 민족독립 사상을 고취시킨다는 이유로 일제로부터 심한 탄압을 받게 되자, 민족선각자들은 비교적 규제가 심하지 않았던 서당으로 관심을 돌리게 된다.

이에 재래의 한문서당은 전통적 유교사상을 고집하면서 간접적으로 일제에 대항하여 민족의식을 고취하였고, 개량서당은 신문화의 도입에 적응하며 새로운 방법 및 제도를 통해 민족 발전을 꾀하고자 하였다.

개량서당은 1919년 3·1운동 이후 민족의 교육열 고조와 일제의 문화정치로 인하여 다소 교육활동이 용이하게 된다.

독립운동의 실패로 일부 계몽론자들은 ‘민족교육’을 위한 방편으로 서당개량운동을 추진하였으며, 식민당국자들은 부족한 보통교육기관 확충을 위한 대안으로 서당 개량화에 착수하였다. 이는 경사 위주의 교과목에서 벗어나 한글·산술·일본어 등의 교과를 추가하는 동시에 암송 위주의 교수법에서 탈피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처럼 개량서당은 상이한 배경에서 대두되었다.¹⁹⁾

개량서당의 설립에는 근대교육 실시를 목적으로 재래서당을 개량한 경우와 처음부터 개량서당으로 설립한 경우, 그리고 처음에는 사립학교나 사설학술강습소를 설립하려다가 당국의 인가를 받지 못하게 되자 개량서당으로 설립한 경우 등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

다음은 이를 입증해 주는 대표적인 기사이다.

재래서당을 개량 후 교사 홍순양씨를 연빙(延聘)하여²⁰⁾

19) 우용제, 「조선후기 서당교육의 양면성」, 『한국근대초등교육 연구』(교육과학사, 1998), pp.6~16.

20) 『동아일보』, 1923년 8월 4일자.
延聘은 예를 갖추어 초빙한다는 뜻이다.

1922년도 전남 고흥군 도화면 내금리는 교통이 불편하고 민지(民智)가 미개할 뿐만 아니라 다수(多數)한 청년자제에게 교육을 줄 기관이 없음을 일반이 유감으로 생각하더니 이번에 본리(本里) 유지 제씨의 발기(發起)로 대규모의 개량사숙을 설립하고 교사를 초빙하여 남아 아동 140여명에게 보통학과를 교수한다고 한다.²¹⁾

1932년도 경기도 안성군 일죽면 화곡리에서 유지들의 노력으로 공동서당을 설립 ... 농촌 문맹퇴치 활동 중 학원계획 불인가(不認可)로 청년유지 30여명이 단결하여 농촌문맹을 퇴치하고자 원대한 계획을 세워 13년간 자금을 축적하여 올 봄에는 건평 21평의 교실을 건설하고 연봉 180원의 유급교원 1명까지 초빙하여 대대적으로 농촌 자제들의 문맹퇴치를 위해 대활동을 하던 바 당국으로부터 간섭을 받을 뿐 아니라 허가조차 하지 아니 하므로 그들이 10여년간 활동하던 학원설치는 수포로 돌아가고 개량서당이라는 명칭 하에 약 10명의 아동을 가르치고 있다고 한다.²²⁾

이처럼 개량서당은 민중의 자각과 자력에 의해 능률적으로 설립되었으며, 그 설립목적은 국민교육과 문맹퇴치, 그리고 민족의식 양양에 두었다. 특히 1920년대에 들어와 교육열이 고조되자 개량서당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했는데 이로 인해 서당교육제의 개량론(改良論)이 활발히 진행되게 된다.

『개벽』 12호(1921년 6월호)에서 서산대사는 서당 개량론을 주장하였는데 그가 말하기를 학교는 적고 따라서 입학원자의 일부 외에는 수용치 못하는 바 그 이외의 학생은 대개 서당으로 가고 있으니 이것을 개량하여 학교에서 교수하는 교과를 서당에서 교수케 하는 것 외에는 방도가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일면일교제(一面一校制)가 이루어진다 해도 학교가 부족한 실정이니 각 동리에 있는 서당을 동민들이 자발적으로 개량하도록 촉구하였다.²³⁾

서당 개량론은 초등교육기관의 부족 때문에 부득이 서당을 정규학교에 준할 수 있도록 개량하여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요컨대 이러한 논지는 민중교육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보려는 한국인의 노력과 고심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으로 형태는 서당제를 이용하면서도 내용만은 근대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있었다.

21) 『동아일보』, 1922년 10월 30일자.

22) 『동아일보』, 1932년 10월 25일자.

23) 노영택(1979), 『일제하 민중교육 운동사』 (탐구당, 1979), p.104.

서당은 일제의 탄압으로 총수는 감소했어도 재래서당을 통폐합하여 개량서당을 설치하거나 애초에 규모가 큰 개량서당을 신설함으로써 1930년대에 들어와 규모가 현저히 확대되게 된다. 이는 보통학교에서 대부분의 학령아동들을 수용하지 못하는 가운데 많은 서당들이 폐쇄되고 새로운 서당의 설립인가는 어렵기 때문이었다. 즉, 재래서당들이 시설이 미흡하여 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사상문제 때문에 폐쇄되면 잔존하는 다른 서당으로 아동들이 몰려들게 되었고 이러한 서당의 학생수 증가는 서당시설의 확장이 촉발하였기 때문이었다.

서당마다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개량서당들은 <표 1>에서 보듯이 당국이 규정한 학생수 30명 한도를 초과한 곳이 많았다. 이러한 규모의 개량서당은 보통학교와 같이 여러 학급을 편성하여 운영하지 않으면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하였다. 이 시기 개량서당의 학생수는 보통학교의 학급 규모를 능가하였으며, 규모가 큰 개량서당은 학생수가 200~300명을 넘어섰다.

<표 1> 1930년대 개량서당의 학생수²⁴⁾

서당 명칭	소재지	학생수	교사수 (-:불명)	창립 시기	전 거
연 광 서 당	괴산군 장연면	100	-	1930.2.7 인가	『동아일보』, 1930.2.11.
동 명 의 숙	이천군 용포면	60	-	1930.9	『동아일보』, 1930.9.14.
풍 산 서 당	삼수군 자서면	50	4		『동아일보』, 1930.11.14.
길 현 의 숙	대전군 기성면	100	-	1922년 창립	『동아일보』, 1930.12.31.
남교동 서당	목포시 남교동	191	5		『목포신문』, 1931.9.19.
보 성 서 당	봉화군 춘양면	70	-	1931.12	『동아일보』, 1931.12.9.
신작리 서당	강동군 만달면	40	-	1932.4	『동아일보』, 1932.5.24.
랑가동 서당	황해도 개원현	60	-		『동아일보』, 1932.6.19.
유수돈 서당	황해도 개원현	70	-		『동아일보』, 1932.6.19.
남 산 서 당	당진군 신평면	60	-	1930.7 창립	『동아일보』, 1933.5.7.
		40	2	1932.11 재건	
동 흥 서 당	삼수군 금수면	50	-	1934.1 창립	『동아일보』, 1934.1.30.
동 촌 서 당	홍원군 용원면	80	-	1935년 7주년	『동아일보』, 1935.2.21.
영 신 서 당	전남 보성군	140	-	1934.2 창립	『동아일보』, 1935.6.28.

이렇듯 큰 규모의 개량서당이 많아진 이유 중에 하나는 일제가 일면일교제(一面一校制) 달성 후 보통학교 증설이 경비부족으로 한계에 부딪히자 서당개량을

24) 박래봉, 「일제통치하의 서당교육의 실태-제주도 I-」, 『한국교육사학』 제6집 (한국교육학회교육사연구회, 1984), p.111의 <표6>.

박래봉의 제주도 개량서당 연구에 의하면 학생수가 30명 이상만 되어도 교사가 2인 이상인 곳이 대부분 이므로 교사의 수가 미상으로 나온 ‘-’는 학생수에 비례하여 교사의 수를 계산해도 좋을 것이다.

조장하여 입학난을 완화하려는 방침²⁵⁾ 때문이었다.

일제는 부족한 보통학교를 대신하는 식민교육의 방편으로 개량서당을 적극 활용하고자 하였는데 이는 일제가 매 학급 40명 규모로 편성된 간이학교를 창설하고, 개량서당을 적극 지원하여 간이학교로 개편하는 사례에서 확인 된다.

이렇듯 일제가 「서당규칙」에 위배되는 대규모의 개량서당들을 방관하였던 것은 이러한 개량서당들이 장차 간이학교를 거쳐 사립학교 내지 보통학교로 승격됨으로 인해 별도의 경제적 부담 없이 학교가 증설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었다.²⁶⁾

개량서당은 지역적 사정에 따라 그 분포와 규모에서 차이가 발견되는데 대체로 남부지방에 비해 북부지방에서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표 2> 북부지방의 서당현황²⁷⁾

지 방	서 당 수				합 계	비 고
	개 량서당	백분율	재래서당	백분율		
황 해 도	140	15.4	770	84.6	910	1933년 10월 현재
평안남도	300	24.6	920	75.4	1,220	1933년 현재
평안북도	735	67.9	348	32.1	1,083	1932년 12월 현재
강 원 도	279	26.8	762	73.2	1,041	1933년 현재
함경북도	269	90.9	27	9.1	296	1933년 5월 현재
계	1,723	37.9	2,827	62.1	4,550	

개량서당은 1932년 현재 전국의 서당 총 9,208개소 중에 1,200개소로서 전국 서당의 13%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다.²⁸⁾ 그런데 <표 2>에서 1933년도 황해도·강원도·평안남도·평안북도·함경북도의 서당 상황을 보면 5개 도의 서당 총 4,550개소 중 개량서당은 1,723개소로 5개 도 서당 전체의 37.9%라는 괄목할만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5) 『동아일보』, 1935년 1월 24일자.

26) 임흥순, 『조선행정요람』 (조양출판사, 1929), p.182.

27) 『서당개선에 관한 구체적 의견』, 조선총독부학무국, 1933;
박중선, 「일제 강점기(1920~1930년대) 조선인의 서당개량운동」,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p.54
에서 재인용.

28) 『동아일보』, 1933년 11월 1일자.

이렇듯 북부지방이 남부지방²⁹⁾의 개량서당 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경제사정의 열악하여 보통학교 증설에 소요되는 학교비를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개량서당을 설립하고 그곳을 과도적인 초등교육기관으로 활용하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남부지방에서는 보통학교 신설, 개량서당의 보통학교 승격³⁰⁾, 학급 증설 및 학년 연장 등의 방법으로 보통학교에서 아동들을 추가 수용하였다. 그러나 경제력이 미약하여 보통학교 증설이 어려운 서북부지방에서는 개인보다는 대부분 부락 또는 문중의 학결을 중심으로 개량서당을 설립하고, 그곳에서 보통학교에 버금가는 신식교육을 실시하였다.

<표 3> 1930년대 각도별 서당 평균 학생수³¹⁾

연도 지방	1931	1932	1933	1934	1935	1936	1937
경기도	11	13	14	16	18	20	20
충청북도	9	11	16	21	29	29	37
충청남도	11	13	19	23	26	23	26
전라북도	10	11	14	16	18	19	22
전라남도	19	18	21	24	26	29	31
경상북도	12	13	12	13	14	15	17
경상남도	12	13	15	15	16	20	22
황해도	15	14	18	23	28	29	30
평안남도	15	15	17	30	18	23	24
평안북도	26	28	29	30	33	35	38
강원도	12	12	18	16	21	20	24
함경남도	21	21	25	29	29	34	36
함경북도	23	26	27	28	47	57	46
평균 학생수	15	16	18	22	25	27	29

29)

남부지방의 서당 상황

지방	서당수				합계	비고
	개량서당	백분율	재래서당	백분율		
전북	50	21.5	183	78.5	233	1933년 현재
경북	90	22.5	310	77.5	400	1933년 현재

(전거: 『동아일보』, 1933년 12월 1일자)

30) 제주도교육청, 『제주교육행정발전사』, 1991, p.244

제주도의 경우 해방 이전에 개량서당에서 간이학교 이상으로 승격된 사례는 28개 개량서당 중 7개 서당으로 25%에 달하였다.

31) 조선총독부, 『통계연보』, 1931~1937년.

<표 3>에서 확인되듯이 북부지방에서는 평균 학생수에 비해 많은 수의 학생들이 서당에서 수학하고 있다. 이는 북부지방에서는 개량서당에서 행해지는 신식 교육이 초등교육의 확대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둘째, 사상문제로 일제의 탄압에 의해 많은 서당이 폐쇄되면서 사상문제의 소지가 없는 개량서당이여야 경영이 용이하였기 때문이었다.³²⁾

일제는 서당에서 일단 사상문제가 발생하면 종래 묵인되어 왔던 수많은 소규모 무인가 서당까지³³⁾ 일체 폐쇄시켰다. 그러나 일제도 서당의 교육방법이 사상 안정에 유익하다는 것을 경험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폐쇄보다는 적당한 조건하에 다시 인가하기도 하였는데, 이때 한 번 폐쇄되었다가 재인가 받는 서당들은 경사만 가르치는 재래서당으로 지속하기보다는 대부분 「서당규칙」 개정에 의거하여 상당한 시설을 갖춘 개량서당이 되었다. 평안남도에서는 서당에서 사상문제가 적잖게 발생하자 당국이 서당의 증설을 감소시키고, 일본어와 공민교육에 중점을 둔 서당개량에 힘쓴 예가 있다.

셋째, 행정상의 이유이다. 즉 면의 통폐합이 빈번했던 지방은 일면일교제(一面一校制)의 달성이 형식적이어서 이로 인한 입학난을 개량서당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다.

일제는 1929년부터 일면일교제를 추진하였으나 경제적인 여건상 공립보통학교의 증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일면일교제 목표 달성을 염두에 두고 무리하게 여러 차례에 걸친 행정구역 개편을 실시하였다. <표 4>는 일제강점기 면수의 증감을 분석한 것으로 이를 통해 1929~1936년 사이에 면수가 급격히 감소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2) 오성철, 「1930년대 한국초등교육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pp.136~146.

북부지방의 사립학교들은 역사적, 지리적 특성상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경향이 강하여 일제의 탄압과 견제를 많이 받아서 경영난에 빠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사립학교들은 공립보통학교로의 전환을 추진하기도 하였지만 사립학교로 끝까지 존속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립학교는 보통학교보다 식민교육체제의 통제를 덜 받기에 학생의 선호도가 높았는데, 이와 같은 선상에서 개량서당의 성행도 이해할 수 있다.

33) 『통계연보』의 통계는 소규모의 무인가서당들은 무시하고 인가를 얻은 개량서당만을 집계하였다. 이러한 통계상의 차이는 충청남도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통계연보』에 따르면 1934년도 말 165개소, 1935년도 말 서당수가 182개소인데, 지방별 현지조사에서는 1935년도 현재 무인가서당을 제외한 인가서당만 173개소, 무인가서당은 351개소로 나타났다. (『동아일보』, 1935년 11월 14일자.)

<표 4> 일제 강점기 면수의 증감 분석³⁴⁾

도별 기간	변경된 면수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황해	평남	평북	강원	함남	함북
1913~1928	-1	-4	0	0	-7	0	-6	-6	-4	-1	0	-1	+2
1929~1936	-13	-6	-5	-16	-20	-12	-16	-5	-24	-19	-5	-12	-5

면수의 변화를 <표 4>를 통해 살펴보면 1912년 면제가 개편된 이후 1928년까지는 면제 조정의 필요성에 의해 10개 도에서 최대 7개면이 증감되는 과정이 있었다. 그러나 1929년부터 일면일교제가 완성된 1936년까지 13개 전도에서는 5~24개 면의 감소가 있었는데 이는 이전 시기에 비해 훨씬 짧은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급격한 변화로 행정구역 개편상의 정정이기 보다는 특별한 사정에 의한 변화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1935년도 현재 도별 면적 및 한국인 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5> 1935년 도별 인구상황³⁵⁾

구분 도별	면적(km ²)	전국도에대한 千分比	한국인 수	면수	1면당 평균 면적(km ²)	1km ² 에 대한 인구수
경기도	12,812	58.03	2,024,387	242	52.9	169.5
충청북도	7,434	33.67	866,734	104	71.5	117.7
충청남도	8,099	36.68	1,365,815	170	47.6	171.8
전라북도	8,561	38.78	1,415,814	172	49.8	169.5
전라남도	13,891	62.92	2,240,982	248	56.0	164.4
경상북도	18,987	86.00	2,296,943	250	75.9	123.6
경상남도	12,305	55.74	2,033,104	238	51.7	172.6
황해도	16,730	75.78	1,497,919	218	76.7	90.8
평안남도	14,928	67.62	1,306,129	141	105.9	90.0
평안북도	28,443	128.83	1,523,460	174	163.5	54.7
강원도	26,262	118.95	1,430,556	172	152.7	55.0
함경남도	31,978	144.84	1,500,016	137	233.4	48.3
함경북도	20,345	92.16	703,732	76	267.7	36.5
계	220,776	1,000	20,205,591	2,342	94.3	94.2

<표 5>에서 보듯이 북부지방은 1개 면의 넓이가 남부 지방의 2~5배 정도로 지역이 광대하여 일면일교제가 달성되어 면내에 보통학교가 있어도 보통학교 근처에서 기숙할 수 있을 만큼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학생은 집에서 수 십리 떨어

34) 조선총독부, 『통계연보』, 1911~1942년.

35) 조선총독부, 『통계연보』, 1935년.

진 보통학교를 포기해야 하는 형편이었다. 따라서 북부지방에서는 부락 가까이 위치하고 학비가 저렴하며, 통학도 편리한 개량서당을 설립하여 보통학교에 버금가는 교육을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

북부지방에서 개량서당의 증가가 현저하게 나타난 것은 사회·경제적인 여건과 지리적인 특성상 보통학교의 증설이 이를 뒤따라 주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개량서당은 지역이 광대한 북부지방에서 적은 비용으로 최대한의 교육효과를 거두는 교육기관으로 더욱 성행하였다.

개량서당은 신문화의 도입과 근대 교육적 체제 확립이라는 시대적 변화에 적응함과 동시에 그 설립과 운영상의 용이함에 힘입어 경제적으로 빈곤한 위치에 있었던 지방민중을 교육함으로써 한국 교육사의 기반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3. 교육과정 성격

개량서당의 교육과정은 크게 정과학과(Regular Curriculum)와 과외활동(Extra Curriculum activity)으로 구별되는데 교과목으로는 한국어, 한문, 일어, 산술 등을 채택하였고 그 외 교과활동으로는 학예회, 운동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학생들의 예술 면까지 교수하였다.

익산군 북일면 사무소 주최로 북신(北新), 매헌(梅軒), 회강(會江)의 세 개 서당 연합운동회를 개최하였다.³⁶⁾

하동 개량서당에서는 지난 3월 10일에 학예회 겸 학부형회를 개최하고 학생의 학예성적을 발표하는 동시에 경영방침에 대하여 협의하였다.³⁷⁾

일제하 서당에서 사용했던 교재에 대해 「조선반도의 교육계」(1911)에서는 다음

36) 『동아일보』, 1921년 5월 31일자.

37) 『동아일보』, 1923년 4월 14일자.

과 같이 말하고 있다.

서방(書房)의 교과서는 천자문, 동몽선습, 통감, 소학, 대학, 중용, 맹자, 시전, 서전 등이 중요한 것이었고, 그 이외에 계몽편, 고문진보, 시경, 십팔사략이 있다.³⁸⁾

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실제로 이 때까지 『동몽선습』은 서당의 교재로 사용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총독부는 1918년 「서당규칙」을 발표하여 서당에서 사용하는 교재에 대해 제한을 가하였는데, 당시 서당에 대하여 기록한 「서당상황」³⁹⁾에 의하면 서당에서 사용하는 교재는 다음과 같다.

천자문, 유합, 계몽편, 격몽요결, 소학, 고경, 사서, 삼경, 통감, 고문진보, 명심보감, 문장배법, 당송팔가문독본, 동시, 당시, 법첩, 조선총독부편찬교과서⁴⁰⁾

여기서는 조선시대 내내 서당교재로 사용되어 온 『동몽선습』 대신 『명심보감』과 『격몽요결』을 새로이 부가하고 있다. 그것은 『동몽선습』이 민족의식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는 이유로 총독부로부터 인가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동몽선습』은 첫째 삼강오륜에 대한 해설, 둘째 유교원리를 설명한 총설, 셋째 중국역사와 한국역사가 간략하게 서술되어 있는 역사요의(歷史要義) 등 3부로 구성되어 있었다.⁴¹⁾ 문제가 된 부분은 바로 역사요의로 이것이 서당교재로 보급되어 가면서 민족의 시조인 단군과 개국의 시기 등을 알게 되어 민족으로서의 긍지와 자각을 갖게 되자 서당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재목록에서 『동몽선습』을 제

38) 秋山鐵太郎, 「조선반도의 교육계」 『教育時論』 (1911년 10월 25일호, 1911), p.12;

박래봉, 「일본통치하 서당교육의 구체상-전라북도를 중심으로(II)」 『韓』3권 14호, 1974, pp.21~22에서 재인용.

39) ‘서당상황’은 1918년 『조선회보』 8월호에 실린 「서당규칙」에 의해 각 서당이 의무적으로 서당실상을 보고한 내용을 총합적으로 정리한 보고서이다. 주된 내용은 각 도별 경영실태, 교과서의 종류와 사용자수, 학동의 실태 등 이다.

40) 渡部學, 『근세조선교육사연구』 (동경, 웅산각, 1969), p.247.

「서당규칙」발포 당시 보통학교(수업년한4년, 입학연령8세 이상)에서 사용된 조선총독부 편찬교과서에는 수신, 국어(일본어), 조선어, 한문, 습자, 산술, 이과, 농업, 창가가 있었다. 보통학교의 교과목은 수신, 국어, 조선어 및 한문, 산술 (이상 필항과목), 이과, 창가, 체조, 도서, 수공, 재봉 및 수예, 농업초보, 상업초보이었으며, 역사, 지리는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이것은 당시 일본의 심상소학교에서는 제5학년 이상에게 역사, 지리가 부과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새로이 부가된 ‘명심보감’은 초학자의 도덕교본으로 사용되어 온 것이고, ‘격몽요결’은 이이가 학문의 목적, 방법, 일상생활에서 실천해야 할 예절을 기술한 것이다.

41) 백상철, 「한국서당교육의 선교 교육적 접근」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4), p.38.

외시켰던 것이다.⁴²⁾

그러나 실제로 『동몽선습』은 일제의 가혹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교재의 명칭을 바꾸고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등 총독부의 감시를 피해 널리 사용되었다.

<표 6> 『동몽선습』 이본 일람표⁴³⁾

순번	서명	편저자	간년	간행지	적요
1	유몽선습	불명	불명	불명	ㅌ는 吏讀, 李朝史는 전부삭제, 結語는 있음. 서명은 유용이라 하고 말미에는 동몽선습종이라 함.
2	동몽선습	불명	불명	불명	ㅌ는 吏讀, 내용수정 없음
3	훈몽집요	(박세무) 이규용	1914	경성	ㅌ는 한글, 5倫의 부분은 「동몽선습」과 동일하고 기타는 별도편저 「安東 權世鎭 校正」이라 했음
4	언해도상 동문선습	(박세무) 박영진	1915	경성	ㅌ는 한글 언해있음. 별도의 교훈 있음. 插畵 5枚, 欄外註釋있음. 중국사 간략화, 한국사와 결어는 전부삭제
5	동자필습	(박세무) 백우	1916	경성	ㅌ는 吏讀, 欄外註釋있음. 李朝史는 전부삭제 「漢武帝 討滅之分基地」를 「漢武帝又侵略之分基地」로 수정. 별도 교훈있음
6	언해동몽학	(박세무) 홍종응	1931	수원	ㅌ는 한글, 언해 있음. 한의 위만조선토멸, 사군지배, 당의 백제 고구려토벌을 삭제, 李朝史는 전부삭제, 결어있음. 「조선총독부지령 제1902호 허가」라고 표시
7	토언 동몽선습	(박세무) 박영진	1932	경성	ㅌ는 한글 「한무제토멸위지」는 두고 사군설치 지배는 삭제 李朝史는 전부삭제. 「唐高祖 百濟 高句麗分其他 置都督府以 劉仁願薛仁貴 質鎭撫之」를 「新羅与唐 滅百濟 高句麗分基地 鴨綠江以北 割与唐」으로 수정
8	언해도상 동몽초학	(박세무) 박영진	1932	전주군	(4)와 동일. 「조선총독부허가」라 표시
9	동몽선학	(박세무) 신태삼	1935	경성	(6)과 동일. 「조선총독부허가」라 표시

42) 노영택, 『일제하 민중교육 운동사』 (탐구당, 1979), p.108.

43) 도부학, 「조선채래민간초등교과서」, 동몽선습의 전진상; 노영택(1979), 같은 책, p109에서 재인용.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량서당은 그 교과목에 있어 신·구 교과목을 모두 취급하였으며, 보통학교 교과목을 거의 모두 교수하고 있었다. 이러한 개량서당의 신교과 도입은 교원의 수 증가 및 질적 수준 향상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표 7> 서당교사 2인 이상의 서당 수⁴⁴⁾

연도	서당수	교 사 수			교사2인 이상 서 당 수	백분율
		총수	남	여		
1911	16,540	16,771	16,771	-	231	1.3
1912	18,238	18,435	18,435	-	197	1.0
1913	20,468	20,807	20,807	-	339	1.7
1914	21,358	21,570	21,570	-	212	1.0
1915	23,441	23,674	23,674	-	233	1.0
1916	25,486	25,831	25,831	-	345	1.4
1917	24,294	24,520	24,507	13	226	0.9
1918	23,369	23,613	23,590	23	244	1.0
1919	24,030	24,185	24,173	12	155	0.6
1920	25,492	25,621	25,602	19	129	0.5
1921	24,193	24,531	24,507	24	338	1.4
1922	21,057	21,699	21,663	36	642	3.0
1923	19,613	20,281	20,236	45	668	3.4
1924	18,510	19,101	19,067	34	591	3.2
1925	16,873	17,388	17,347	41	515	3.1
1926	16,089	16,563	16,524	41	474	2.9
1927	15,069	15,509	15,485	24	440	2.9
1928	14,957	15,469	15,429	40	512	3.4
1929	11,469	11,908	11,885	23	439	3.8
1930	10,036	10,550	10,477	73	514	5.1
1931	9,208	9,594	9,527	67	386	4.2
1932	8,630	9,007	8,937	70	377	4.4
1933	7,529	7,964	7,889	75	435	5.8
1934	6,843	7,408	7,297	111	565	8.3
1935	6,209	6,876	6,766	110	667	10.7
1936	5,944	6,543	6,455	88	599	10.1
1937	5,681	6,211	6,110	101	530	9.3
1938	5,293	5,832	5,724	108	539	10.2
1939	4,686	5,245	5,099	146	559	11.9
1940	4,105	4,755	4,599	156	650	15.8
1941	3,504	4,097	3,941	156	593	16.9
1942	3,052	3,729	3,556	173	677	22.2

<표 7>은 교사가 2인 이상의 서당수를 통계 낸 것으로 여기에서 주목할 만

44) 조선총독부, 『통계연보』, 1911 ~ 1942년.

한 점은 1910년대에 전체 서당의 약 1%, 1920년대에 약 3%에 불과하였던 교사 2인 이상의 서당이 1930년대에 들어 전체 서당의 10%를 넘어설 만큼 급성장 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개량서당에서 보통학교에 버금가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신교과를 설치하고, 이를 가르칠 교사를 채용함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이었다.

또한 교육내용이 개량되고 학생수가 많아짐에 따라 신교과를 충실히 가르치기 위하여 신식교사가 많이 초빙되면서 서당 교사의 급료수준이 보통학교 교사의 급료수준에 근접하게 된다.

<표 8> 공립보통학교 교사의 월평균 급료⁴⁵⁾

(단위:圓)

연도	훈도		축탁		강사		서당교사
	남	여	남	여	남	여	
1931	54	48	41	37	22	7	『서당개선에 관한 구체적 의견』에 의하면 12개도의 급료 수준은 다음과 같다. 普校教員派遣: 전남, 함남, 함북 월 30원: 경기, 경북, 평남 월 25원: 충북 월 20원: 충남 월 12.5원: 황해 액수불명: 경남, 평북, 강원 (월5원+수업료)
1932	54	48	41	34	36	8	
1933	55	48	42	36	18	9	
1934	55	48	42	35	30	7	
1935	55	48	40	34	27	8	
1936	55	48	40	33	25	7	
1937	55	47	40	35	14	7	
1938	56	47	51	32	21	8	
1939	56	46	41	35	24	7	
1940	58	46	37	34	36	9	

개량서당에 초빙되는 교사의 급료는 위와 같이 대략 월 20~30원 정도로 보통학교 한국인 강사 이상의 대우에 해당하였다. 이는 서당교사의 질적 수준이 보통학교 교사의 질적 수준에 점차 접근하고 있으며⁴⁶⁾, 일제가 서당을 장차 보통학교

45) 조선총독부, 『통계연보』, 1931~1940년.

46) 경기도의 경우 서당교사 총수의 29%가 보통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신식교사였으며, 이들은 경기도 서당 총수의 31%인 178개 개량서당에서 신교과를 가르치고 있었다.

경기도 서당교사의 교육정도 (1935년 현재)

구분	서당수	교사수(명)	백분율		급료 年60圓 ~300圓
중등교육이수자	570개소 *개량서당: 178개소(31%) *재래서당: 392개소(69%)	600	20	3%	
초등교육이수자			152	25%	
전 보통학교 교원			2	1%	
한학 전공자			426	71%	

(典據: 『동아일보』, 1935년 1월 24일)

를 대신하는 식민교육기관으로 지도하려 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개량서당은 교과에 있어서 근대교육의 교과를 도입하고 교원도 신교육을 받은 자들로 구성함으로써 국민교육과 문맹퇴치, 그리고 민족의식 양양에 큰 공헌을 하였다.

4. 개량서당의 역할

서당교육은 한 국가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일반대중을 그 교육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수평적으로 널리 보급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그 명맥도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되어 이어져 내려올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서당교육은 민중과 함께 하였던 유일한 교육기관으로 민족사의 발전에 기여함도 적지 않았다.

특히 일제강점기 개량서당은 교육내용에 있어 근대식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이 때까지와는 다른 형태의 교육인구 저변확대를 이루었는데, 이에 본고에서는 일제하 개량서당의 역할을 사실 초등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과 민족의식 양양을 통한 항일구국운동의 역할로 구분하여 고찰 하고자 한다.

1) 사실 및 초등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

서당은 사실 교육기관으로서 민중의 자발적인 의지로 설립·운영되어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교육을 제공해 온 완성교육기관이었다.

서당의 초등교육적 성격이 뚜렷해진 것은 근대교육이 전개된 19세기 후반 이후부터로 특히 일제하 서당교육의 형태가 재래서당에서 개량서당으로 변화하면서 이러한 성격은 한층 뚜렷해졌다. 즉 일제하 총독부의 한국인 차별교육으로 인해 대다수의 일반 서민 자제들이 보통교육을 받지 못하게 되자 개량서당은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한문, 일본어, 산술 등을 가르치는 초등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⁴⁷⁾

47) 반산진, 「서당교육의 사회·교육적 역할」(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p.72.

일제강점기 정규 근대식 초등교육기관인 공립보통학교는 수적으로 부족하여 한국인 취학아동을 수용하지 못하였다. 더구나 보통학교의 학비가 일반서민에게는 부담스러웠을 뿐 아니라 일제에 대한 항거의 표시로 민중은 자신의 자제들을 보통학교에 보내지 않고 서당에 보냈다. 특히, 농촌에서는 실제적으로 보통학교의 부족현상이 더욱 심각하였는데, 이에 『동아일보』가 전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오늘날의 상태 하에서 당면 적으로 본다면 농촌에 있어서 보통학교의 증설도 필요하지만 서당, 강습소, 야학 등의 시설도 매우 필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일면일교(一面一校)가 되어도 교통관계로 통학이 불능(不能)인 경우가 많고 경제관계, 학령을 초과한 관계와 학교 수용력의 부족 때문에 이 같은 보조교육기관의 필요를 통감하게 된다.⁴⁸⁾

한편 총독부는 대륙침략으로 인해 재정확보가 어려워지고 교육예산이 부족해지자 서당을 통한 초등교육 실시를 수용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서당은 정규학교의 보조교육기관으로서 취학 전 아동들을 대상으로 초등교육을 담당하게 된다.

<표 9> 1920년도 각종 보통학교 입학자 출신별 분포상황⁴⁹⁾

	입학자(제1학년)		입학자 출신별		
	성별	학생수	성별	서당을 거친 자	서당을 거치지 않은 자
공립보통학교수 547교	남	29,564	남	23,117(78%)	6,447(22%)
	여	5,911	여	314(5.3%)	5,597(94.7%)
	계	35,475	계	34,431(66%)	12,044(34%)
사립보통학교수 35교	남	1,049	남	682(65%)	367(35%)
	여	474	여	125(56%)	349(74%)
	계	1,523	계	807(53%)	716(47%)
사립각종학교 (일반종교) 학교수 617교	남	12,063	남	4,647(39%)	8,428(61%)
	여	2,567	여	526(21%)	2,041(79%)
	계	14,630	계	6,173(42%)	8,457(78%)

48) 『동아일보』, 1932년 5월 15일자.

49) 조선총독부, 『관보』, 1920년 11월 10일자;
노영택, 『일제하 민중교육 운동사』 (탐구당, 1979), p.122에서 재인용.

<표 9>를 통해 남자는 여자에 비하여 서당경력자가 많고 공립보통학교의 서당경력자가 사립보통학교의 서당경력자보다 비율을 높게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립각종학교의 비율이 낮은 이유로는 같은 사설교육기관으로 시설이나 교육내용의 차이가 크지 않았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이처럼 서당교육은 보조초등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에서도 뚜렷하게 두각을 보였다.

1930년에 들어오자 서당은 보조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인정받아 민족지도자들에 의해 장려되었는데 이것은 당시 고조되는 민족의 교육열에 비하여 교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한데서 오는 현상이었다.

이처럼 개량서당은 일제강점기에 들어와서 근대식학교와 더불어 직접 초등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학교의 부족 등을 해소하기 위한 보조초등교육기관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민족사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2) 항일구국운동으로서의 역할

서당교육은 민족의 민중교육을 이어주는 하나의 큰 「맥」으로 고구려의 경당에서부터 고려 조선에 이르기 까지 서민들을 위한 유일한 교육기관으로서 대중에게 불지불식간에 민족의식을 심어주는 작용을 하여 왔다.

이러한 측면은 일제의 탄압 속에서 더욱 뚜렷이 나타나게 된다. 일제의 교육정책이 식민지 백성으로 하여금 민족의식을 말살해 버리고 「충량한 황국식민화」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근대식 교육을 도입한 개량서당은 인재양성, 실력배양, 계몽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며 비운에 빠진 조국과 고통에 허덕이는 민족을 구하고자 하였다.⁵⁰⁾

『동아일보』에서 주최한 1936년의 입학난문제 좌담회에서 “서당이 폐지되는 이유는 경영자 또는 교원의 사상문제다.”⁵¹⁾라고 하고 있어 서당의 설립자와 그 경영자 중에는 민족 운동가들이 많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일제강점기라는 특수한 시대적 배경 하에서 민족의 항일구국운동을 전개하게 된 서당교육은 첫째, 민족의식의 개발 및 민중의 교화를 통한 구국운동 둘째, 교

50) 김호일, 「근대사립학교의 설립이념」, 『사학연구』 23호, 1973, p.121.

51) 『동아일보』, 1936년 2월 2일자.

육내용의 개선을 통한 구국운동 셋째, 의병운동의 온상으로서의 기능을 통하여 구국운동을 실시하였다.

첫째, 민족의식의 개발 및 민중교화를 통한 교육구국운동은 서민의 교육을 맡아 지방 청소년의 교화를 담당하던 서당이 일제의 침략으로 인하여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음을 나타낸다. 일제하의 서당교육은 민족정신을 고양하여 일제의 식민지주의 교육정책에 저항하고자 교육인구를 확대해 가는 민중교화적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특히 개량서당은 근대식교육을 시행하여 새로운 시대에 맞는 지식을 습득시킴으로써 민중교화를 위한 근간을 마련하였다. 따라서 개량서당에서는 근대교육제도와 거의 유사한 교육을 통해 당시 무지했던 민중을 교화시키고, 그들에게 민족의식을 불어넣어 줌으로써 일제의 식민정책에 대항하였다.

둘째, 교육내용의 개선을 통한 교육구국운동으로 당시 탄압을 받고 있던 근대 사립학교를 대신하여 개량서당이 교육내용을 개선함으로써 교육구국운동을 이어나갔다. 따라서 서당교육은 재래의 한문습득에 만족하지 않고 민족정기를 내세우며 그들의 전통적 교육사상인 존왕애국정신(尊王愛國精神)을 함양하는 장소로 변화하여 한자뿐만 아니라 한국사·한국지리 등의 교재를 통해 독립운동을 고취하려 하였다.⁵²⁾

또한 서당교육의 중요한 교재였던 『동몽선습』의 마지막 부분인 역사요의 부분에 대한 일제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그 이본(異本)을 만들어 한국 역사를 교수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주체의식을 불어 넣어 주었다.

셋째, 의병운동의 온상으로서의 역할이다.

당시 사립학교를 세우고 교육을 통한 구국운동을 실시하려던 민족 지사들은 사립학교에 대한 탄압이 심해지자 일제의 감시를 피하여 서당에서 항일구국운동을 전개해 나갔으며, 의병활동을 하던 독립투사들 또한 의병활동이 실패하게 되자 서당을 그 은신처로 삼고 아동교육에 열중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독립운동을 하기도 하였다.

의병대장 김석용(金錫傭)은 유생으로서 향당(鄕堂) 인리(隣里)에서 이진사(李進士)라 일컫던 인물로서 융희(隆熙)년간 정변을 계기로 의병을 규합(糾合)하여 대범(大

52) 차석기, 「일제하 서당의 민족주의교육」, 『사대논집 I』 (고려대학교, 1974), pp.4~5.

凡) 7년간 전라, 경상, 충청 등 삼남지방을 항일무대로 여러 번 일본수비대와 충돌, 많은 전공(戰功)을 세웠으며, 1909년 여름 관헌(官憲)의 눈을 피하여 가족과 함께 경남지방으로 이주(移住)하여...틈 있는 대로 부근 아동을 계몽하던 중...⁵³⁾

이와 같이 의병장들은 독립운동에 실패하자 한문교사로 은신하거나 향리에 숨어 동몽교육에 힘쓰으로써 항일구국교육운동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처럼 서당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나 생도들은 의병과 기타 사립학교의 교원경력을 가졌거나 배일사상이 철저한 유림출신이 많았다.

또한 1919년 3·1운동 때 선봉에서 민중을 지도한 전국 75개소의 각급학교 독립주동 지역 중 12개소가 서당생도에 의하여 나타났으며 피검된 피수인원 19,525명의 교육성분을 살펴보면 서당교육을 받은 자가 3,754명을 차지하고 있고, 이 운동을 전국적인 민중운동으로 승화시키는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것도 서당을 중심으로 교육을 받은 민족주의자였다.⁵⁴⁾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제하에서의 교육구국운동은 사립학교에 대한 탄압을 피하여 서당에서 직접·간접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개량서당은 교육의 근대화를 받아들임으로써 민족의 독립을 위하여 그 기능을 다하였다.

따라서 사립학교에서 제한을 받았던 교육구국운동이 서당을 통해 다시 전개되었던 점을 감안할 때 구국운동으로서의 서당교육의 역할은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53) 『매일신보』, 1913년 12월 6일자;

국사편찬위원회, 『일제하 한국 36년사』 2권, 1967, p.398에서 재인용.

54) 차석기, 「일제하 서당의 민족주의교육」, 『사대논집 I』 (고려대학교, 1974), p.5.

Ⅲ. 제주도 개량서당의 실태

1. 일제강점기 제주도의 실정

1) 경제적 상황

제주도민은 부지런하고 검소한 생활습성과 아울러 남자의 島外(주로 일본특지)에 출노(出勞)와 해녀의 수입 등으로 식민지시대 경제적인 면에서 타지방보다 여유가 있었다. 1926년 제주도청 조사에 의하면 지주, 자작농, 자작겸 소작, 소작농, 궁농이 모두 전국 평균수입보다 높은 상태였고 당시의 농가 생활상태에서도 일반적으로 대농과 소작농이 적고 부업 수입이 많았다.⁵⁵⁾

제주도는 큰 자산가와 극빈자가 없는 생활정도가 평균적으로 영위되고 일반 생활상태가 타지방에 비하여 여유가 있었음은 일제 통치하의 꺾박하였던 조선 농촌 사정으로는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이의 원인으로 제주도는 기후가 온화하고 자원이 비교적 풍부하며, 생활양식이 간결하고 남녀 공히 근면하여 자급자족의 관념이 강하며, 도서특유의 반농반어업의 주민이 많고 농업상 부업생산의 발달도 그 원인의 하나이다. 특히 여자의 노동은 가계안정에 크게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추측된다.⁵⁶⁾

제주도 경제 안정에 빼놓을 수 없는 사실은 도민의 출노(出勞)로 당시 출노는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출노와 해녀의 출노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출노자 수는 오사카 외의 기타지방에 산재하는 노동자 약 1만명과 근해와 원양에 출노 하는 해녀 1만명을 합하면 5만명이 넘는데, 이를 호수에 할당한다면 평균 한 집에 한 사람 꼴이 되었다.

도항자(渡航者)의 수적 추세는 <표 10>과 같다.

55) 조선총독부, 『생활상태조사(其二) 제주도』 (조선총독부, 1929), pp.163~172.

56) 박래봉, 「일제통치하의 서당교육의 실태-제주도 I -」, 『한국교육사학』 제6집 (한국교육학회교육사연구회, 1984), pp.99~133.

<표 10> 일본 도항자수 누년 비교표⁵⁷⁾

연도	도 항 자			귀 환 자			差 引 증(△ 감)	누 계
	총 수	남	여	총 수	남	여		
1926	15,862	11,742	4,120	13,500	10,029	3,471	2,362	28,144
1927	19,224	14,479	4,745	16,863	12,015	4,848	2,361	30,505
1928	16,762	11,745	5,017	14,703	10,100	4,603	2,059	23,564
1929	20,418	15,519	4,903	17,660	13,326	4,334	2,758	34,322
1930	17,890	12,029	5,861	21,426	15,175	6,251	△3,536	31,786
1931	18,922	11,635	7,287	17,685	12,512	5,533	1,237	33,023
1932	21,409	11,695	9,714	18,307	10,382	7,925	3,102	36,125
1933	29,208	15,723	13,485	18,062	1,356	5,706	11,146	47,271
1934	16,904	9,060	7,844	14,130	8,115	6,015	2,774	50,045
1935	9,484	4,327	5,157	11,161	5,986	5,175	△1,677	48,368
1936	9,190	4,739	4,451	11,095	6,037	5,058	△1,905	46,463

<표 10>에서 확인되듯이 도항자가 가장 많았던 1934년 말에는 그 수가 5만명을 넘었고, 그 후로는 공제회가 조직되어 도항제한 또는 방지책이 강구되었기 때문에 점차 감소현상을 나타나게 된다.

노동자의 출노는 거의 대부분이 일본으로 도항하여 오사카를 주요지로 하는 경우가 8할을 차지하였는데, 지방별로 보면 가장 많은 곳이 오사카(大阪) 34,503명, 교토(京都) 2,108명, 고베(神戸) 1,962명, 도쿄(東京) 1,545명의 순위였고⁵⁸⁾, 그들이 제주도로 송금해 오는 금액은 <표 11>와 같았다.

<표 11> 도항자 송금액 표⁵⁹⁾

(단위: 圓)

연 도	송 금 액	일 인 당	연 도	송 금 액	일 인 당
1926	774,784	27.06	1932	685,155	18.96
1927	956,571	31.36	1933	857,919	29.39
1928	1,289,714	39.54	1934	1,053,940	21.05
1929	1,243,301	35.20	1935	1,006,985	20.88
1930	799,180	25.14	1936	1,087,518	23.40
1931	715,012	21.65			

* 비교: 본<표>는 우편국을 경유한 송금으로 함

57) 제주도청, 『제주도세요람』 (제주: 제주도청, 1937), p.20.

58) 제주도청, 『제주도세요람』 (제주: 제주도청, 1937), p.21.

59) 제주도청, 『제주도세요람』 (제주: 제주도청, 1937), p.24.

<표 11>은 우편 송금에 한정된 것으로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액수가 송금 되었으리라 추측된다.

이와 함께 제주 해녀의 출노를 보면, 제주 해녀들은 육지의 해안, 일본, 멀리는 중국, 러시아의 우라디보스톡까지 출어하여 1934년에는 약 5천명의 어획고 약 70만엔과 도근해에서 작업하는 해녀 5천 3백명의 어획고 27만 8천엔을 합하면 백만엔 가까이로 이들이 도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지대한 것이었다.

이러한 제주도민의 출노는 당시의 도민생활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되었고, 이러한 경제적 여유와 일본 등지로 도향한 노동자의 견문은 도민의 교육에 크게 자극을 주었다.

2) 사회적 상황

일제는 1910년부터 1918년에 이르는 동안 토지조사령에 의거 제주도에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였는데 이는 일본인 기생지주를 포함한 반봉건지주제를 창출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일제는 전당으로 맡긴 토지를 되돌려 주지 않거나 위조화폐로 토지대금을 지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토지를 사들이거나 한국인의 이름을 도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엄청난 규모의 토지를 약탈해 갔다.

이러한 토지조사사업은 부락의 공동체성을 위협하는가 하면 제주의 교육환경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다주었다.⁶⁰⁾

이러한 면 남제주군 안덕면 창천리는 토지조사사업으로 인해 마을의 조직과 마을 사람들의 생활양식에 커다란 변화를 겪었던 대표적인 경우이다. 즉 토지조사사업 이전의 마을의 조직은 향장(鄕長), 경민장(警民長), 존위(尊位), 농감(農監), 기찰(讖察), 동장(洞將), 임(任)의 체계를 갖춘 소위 향회(鄕會) 조직으로 본래는 안덕면 대평리, 상창리, 감산리 동쪽 일부와 중문면 상모이리까지 관할하였는데 1900년에 상창리가 분리되고 1914년 토지조사사업으로 서쪽 일부가 감산리에, 상모이리는 중문면에 속하게 됨으로써 향회 조직은 결국 이장 중심의 근대행정체제로 바뀌게 되었다.⁶¹⁾ 이러한 변화는 곧 마을 공동체 교육환경에서 근대행정체

60) 양진권, 「일제하 제주도 초등교육 개설운동」 『초등교육연구』 제1집, 1992, p.32.

61) 『제주도부락지(Ⅲ)』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0), pp.311~313.

제의 교육환경으로의 전환⁶²⁾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즈음 일제는 제주도 근대화 계획을 서둘렀는데 제일 먼저 시행한 작업이 일주도로를 닦는 일이었다. 제주도는 토질이 현무암이기 때문에 도로를 닦는 일은 무척 어려운 일이었다. 1차로 1912년부터 1913년까지 도민들에게 부역을 부과하여 만들었고 2차로 1914년부터 1917년까지 도민에게 3년 계획으로 노폭 확장을 위하여 노변 토지를 소유주로부터 무조건 기부하도록 억압하여 일주 간선도로가 완성되었다.⁶³⁾

일제의 제주도에 대한 이러한 조치는 교육적으로 볼 때 자본주의적 문명화라는 미명하에 이루어진 교육침략의 물적 토대 확보책이었다. 교육을 위한 물적 토대의 확보는 원래 역사 만들기(Geschichte machen)의 한 행위이지만 일제 주도의 그것은 근본적으로 탈아입구(脫亞入歐)의 의식에서부터 출발했다는 데 그 문제가 있다.

탈아입구의 교육모델은 유럽과 미국에서 받아들여진 것으로, 학교에서 새로운 지식과 선진문화를 입수하는 것만이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지식주의적 교육관이다.⁶⁴⁾ 이러한 인식은 조선을 비롯한 아시아 모든 민족을 후진국 내지 열등민족으로 평가하여 교육적 후진지역에서는 배울 것이 없으므로 모든 것을 뜯어 고쳐야 한다는 교육침략의 정당화 이론이었다.

그러나 1919년 3·1운동 이후 일제는 이전의 총독정치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 그 이후부터 소위 문화정치를 시행하였다.

1919년 3월 1일 육지부에서 만세시위운동이 일어나자 제주도에서도 마찬가지로 만세시위운동이 전개되었는데 제주도민들은 조천만세운동은 물론 서귀포의 해상만세시위 그리고 삼매봉 만세시위 등을 전개⁶⁵⁾함으로써 그 동참의 폭을 넓혀나갔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일제는 총독부 정책과 발맞추어 제주도에서도 문화정치를 실시하였다. 우선 일제는 한국인 가운데서 관리를 임명하여 한국인 유력자들을

62) 양진건, 「일제하 제주도 초등교육 개설운동」 『초등교육연구』 제1집, 1992, p.32.

63) 제주도청, 『未開の寶庫 濟州島』(제주: 제주도청, 1924), p.24.

64) 遠山茂樹, 『福澤諭吉』(東京: 東大出版會, 1963) 참조.

65) 양진건, 「조천만세운동의 역사적 의미」, 『북제주』 복간호, 1990, pp.213~216.

포섭하는데 3·1운동이 전개되고 있을 무렵 도내 유력자들을 제주면장으로 앉히기 위해서 그들과 적극 교섭한 결과 개화파 인사인 홍종시(洪鐘時)를 1919년 5월 제주면장으로 앉힐 수 있었다. 그리고 1919년에 마련된 지방행정체도의 개정에 따라 1920년부터 제주 13개면에 관선 면협의회를 설치하고 면협의회원을 선발하여 면 행정에 참여시켰다.⁶⁶⁾ 하지만 면협의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면세를 5원 이상 내는 유지로 제주도의 경우 전체 인구의 1%도 되지 않았다.

3) 지방행정 제도의 상황

조선총독부는 침략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행정 조직을 일본식으로 개편하였다. 1910년 9월 30일 공포된 조선총독부 지방관제에 따라 사실상 면에 해당하는 것(社, 坊, 部 기타)은 모두 면으로 부르게 되었고 지방행정의 하급단위로 인정되어 면장은 군수의 지휘를 받아 면내의 행정을 집행하게 되었다. 1914년 3월 총독부령 제 111호에 의해 전국적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되는데, 제주도에서는 대정, 정의 2군이 폐지되어 제주군으로 병합되었고 추자도는 전라남도 완도군으로부터 분리되어 제주도로 흡수되었다. 제주군 밑에는 13개의 면을 두었고 1915년 5월 1일부터는 군제(郡制)가 폐지되어 도제(島制)로 개편됨으로써 군수를 폐지하고 도사를 두었는데 도사는 제주도 경찰서장, 해녀조합장, 유림회도지부장, 수산회도지부장, 농회도지부장을 겸임하며 전권을 행사하였다. 1931년 4월 1일에는 제주면이 읍으로 승격되어 1읍 12면이 되었고, 1935년 4월 제주도 1읍 12면의 명칭이 면사무소 소재지 里名으로 거의 변경되었다.

이러한 행정구역은 일제 식민지통치 기간 계속되다가 해방 이듬해인 1946년 8월에 들어 전라남도 관할하의 도제(島制)로부터 독립, 도제(道制)가 실시되어 행정구역은 북제주군, 남제주군 2개 군으로 분할되고 1읍 12면이 되었다.⁶⁷⁾

1939년 도청 관리 수는 국비(國費) 16명, 도비(島費) 27명 도합 43명인데 그중 한국인은 25명, 일본인은 18명이었으나 상위직은 거의 일본인이 차지하였다. 도제(島制)가 실시된 1915년부터 일제가 패망한 1945년까지 도사는 총 10인으로 모

66) 전라남도청, 『전라남도사정지』, p.30.

67) 제주도, 『제주통계연보』, 1996, p.36.

두 일본인이었다.

4) 서당교육 상황

서당은 일반 서민자제들의 교육을 위하여 제주의 문화 및 유학 진흥에 이바지한 바가 지대할 뿐 아니라 촌락을 단위로 그 교육적 영향은 전도적 이었다.

원대정군지(元大靜郡誌) 풍속편에는 민속이 다 문학을 숭상하여 비록 극빈하천한 자라 할지라도 부급종사하여 수학하였다고 하였고, 예부터 지리상 중앙진출이 어려우니 경직(京職)을 귀히 여기지 않고 훈장과 좌수를 가장 귀히 여기는 풍조가 이어져 오고 있다⁶⁸⁾함은 이를 증명하고 있다.

특히 개화기 이전의 제주도 초등교육은 정치상이나 그 밖의 이유로 제주로 옮겨온 사람과 유배 온 정객(政客)·학자들에 의해 운영된 서당이 중심을 이루었는데 개화기에 설립된 제주도 근대 교육기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2> 개화기 설립된 제주도 근대교육기관⁶⁹⁾

연도	교육기관명	지역	참고사항
1891	칠봉서숙	오라	
1898			김윤식 유배
1903	의정학숙 일어학당	조천 제주	1907년 폐쇄 日人이 개교
1904	문연서숙	오라	칠봉서숙 개칭, 1915년 폐쇄
1905	개성학교	대정	
1906	신명사숙 진영사숙	조천 하추자도	
1907	의명학교 제주공립보통학교 의신학교	성읍 제주 제주	박영효 유배 제주북교 전신 공립제주농립학교 전신
1908	한일학교	대정	
1909	신성여학교 정의공립보통학교 조천의숙	제주 성읍 조천	1916년 폐쇄
1910	영흥학교 공립제주농업학교	제주 제주	야간 의신학교 모태

68) 고병오·박용후, 『원대정군지』 (박문출판사, 1968), p.61.

69) 제주도, 『제주도지』 제3권, (경신인쇄사, 1993), p.91.

이들 가운데 칠봉서숙에서 개칭된 문연서숙은 이응호(李膺鎬)가 개설한 것으로 그 교육체제는 위정척사의 논리를 바탕으로 한 한문교육이 주를 이루었다. 이렇듯 전통교육의 필요성이 점차 상실되어 가던 1900년대 초반에도 제주도내에 상당수의 서당이 산재해 있었던 것을 보면 한말에 들어서도 서당은 제주에서 여전히 보편적 교육기능을 담당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⁷⁰⁾

일제통치하에서도 제주도는 타지방에 비해 생활이 고루 안정되어 있었고 부지런한 도민의 성품과 강한 향학심으로 인해 자연히 서민들의 서당교육도 본토에 못지않게 활발하였다.

<표 13>은 도내 학교별 교육자의 사항을 나타낸 것이다.

<표 13> 학교별 교육자 수⁷¹⁾

(1929년 현재)

교육 정도	인 원 수 (명)	
	남	여
대학 및 전문학교 졸업	30	-
중등학교정도 졸업	403	20
보통학교 졸업	5,626	320
종래의 한문서당 수학자	22,000	-

<표 13>에서 확인되듯이 대학에서 보통학교에 이르기까지의 정규학교에서 수학한 경우보다 서당에서 수학한 경우가 약 3.5배에 달하고 있어 당시 서당이 제주도민 교육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컸던가를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이 당시 일제의 민족적 차별교육은 제주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었는데 1920년도 도내 한국인 아동 수 약 1400명의 취학률은 0.7%에 불과했다. 이러한 일제의 한국인 차별교육으로 대다수의 일반 서민 자체가 보통교육을 받지 못하게 되자 서당은 단순한 동몽교화와 향교, 사학의 진학을 위한 역할에서 벗어나 한국어, 한문, 일본어, 산술 등 보통학교에 준하는 교과를 가르치는 초등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일제의 식민지교육정책에 대항한 민족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도 담당하게

70) 제주도, 『제주도지』 제3권, (경신인쇄사, 1993), pp.90~91.

71) 조선총독부, 『생활상태조사(其二) 제주도』 (조선총독부, 1929), p.148.

되는데 다음에 나오는 『未開의 寶庫 濟州島』의 교육장을 통해 이러한 서당의 역할을 짐작할 수 있다.

조선인의 초등교육은 공립보통학교 외에 사립학교, 개량서당이 있고 이 밖에 구식의 한문서당도 현재도 다수 존속되고 있다. 이 한문서당을 오늘날의 교육에서 본다면 일개의 가치도 없으나 이 서당교사 중에는 완미(頑迷)한 자가 있고 신교육시설에 대하여 나쁘게 선전하고 공립학교를 비판하는 것은 미소하기 짝이 없으며 그들은 국가사회가 무엇이며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제2의 국민을 양성할 것인가 또 사상의 선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는 일절 무관심이다.⁷²⁾

이는 이민족통치하에 있는 당시의 사상 선도는 동화교육을 동조 찬양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때 식민지주의자가 그 시설과 방법을 비판하기는 했으나 동화교육과는 한 획을 긋는 서당의 진목을 그들 스스로도 자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듯 서당은 일제하 식민지주의 교육체제 속에서도 한국 고유문화를 보존 유지하고 전승시키면서 단순한 ‘글침’이 아닌 민족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 하였던 것이다.

2. 개량서당의 설립

서당은 교육사상 오랜 전통을 가진 초등교육기관으로 개국 이후 근대적 교육기관이 설립되기 전까지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서민교육을 담당하여 왔다. 조선중기 이후로 제주도내에는 많은 수의 서당들이 마을 단위로 산재⁷³⁾해 있었으며, 전통교육이 필요성이 상실되어 가던 구한말에 들어서도 서민들을 위한 보편적 교육기능을 여전히 담당하고 있었다.⁷⁴⁾

72) 제주도청, 『未開의 寶庫 濟州島』(제주: 제주도청, 1924), p.40.

73) 박래봉, 「일제통치하의 서당교육의 실태-제주도 I-」, 『한국교육사학』 제6집 (한국교육학회교육사연구회, 1984), p.103.

74) 제주도, 『제주도지』 제3권, (경신인쇄사, 1993), p.91.

제주도 개량서당은 대체로 일제의 탄압으로 사립학교가 폐교되거나 그의 설립이 어려울 때 그리고 사설학술강습회에 대한 탄압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설립되었으며, 지역적 사정에 따라서는 초등교육 시설이 전연 없거나 부족한 경우 설립되기도 하였다.

사립명신학교는 4년제 남녀공학으로서 교과과목으로는 보통학교의 과정과 동일하되 한문이나 조선어, 산술, 지리 등을 주력하여 지도하였다. 그러나 일제의 간섭이 강화되고 교육재정의 곤란 등으로 부득이 갑자의숙(甲子義塾)으로 개칭하여 개량서당으로 그 명맥을 유지해 오다가 일제의 탄압을 받아 1925년 초에 폐교를 맞게 된다.⁷⁵⁾

이와 같이 당시 민족 교화 운동의 중심이었던 사립학교가 1911년 「사립학교규칙」제정과 1915년의 「사립학교규칙」개정 등으로 일제에 의해 탄압받게 되자 비교적 탄압이 심하지 않았던 서당으로 전신해 버리게 되었던 것이다.

도내 개량서당은 대부분 민족자체가 능동적으로 설립한 경우가 많았으며 경영 방식에 있어서는 대체로 공동운명의 형태를 띄웠다.

1921년도 제주도 구좌읍에는 근래 각리에 교육열이 번성하여 개량사숙을 곳곳에 설립하고 교사를 초빙하여 보통과를 교습하는 학생이 합계 500여명이다.⁷⁶⁾

진신학숙(進新學塾)은 제주시 도두리에서 1921년 7월 2일 개교식을 가졌다. 제주 흥학회 도두리지부 임원들은 수개월에 걸쳐 개량서숙 설립을 서둘렀다. 이 마을 유지들의 의연금인 5천원이나 모금되어 진신학숙의 개교식을 갖게 되고 동지부장 박형전이 식사(式辭)와 내빈의 축사가 있었다. 개설 당시 학동 수는 60여명으로 교사 2명이 지도에 임하였다.⁷⁷⁾

이렇듯 제주도 각지에서 학교를 세우지 못한 부락에서는 주민공동부담으로 보

75) 제주도교육위원회, 『제주교육사』, 1979, pp.70~71.

76) 『동아일보』, 1921년 5월 13일자.

77) 『동아일보』, 1921년 7월 3일자.

통학교 과정에 준하여 교육하는 개량서당이 도의 허가를 얻어 설립되었는데, 1930년대 초에 그 수는 전도 31개소에 달하였다.

<표 14> 1930년 제주도내 서당통계⁷⁸⁾

분 류	서 당 수	백 분 율
개량서당	31개소	37%
재래서당	52개소	63%
통 계	83개소	100%

육지부의 개량서당과 재래서당의 수적 비율을 제주도와 비교·분석하기 위해 본토를 대표하여 경성부내 서당 수 통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성부내(京城府內) 서당 수 통계⁷⁹⁾

1921년도

한문교수서당(재래서당)	107개소	-----	81%
한문, 일어, 산술교수서당(개량서당)	19개소	-----	14%
한문, 산술 교수서당(개량서당)	6개소	-----	5%
통 계	132개소	-----	100%

1935년도

개량서당	178개소	-----	31%
재래서당	392개소	-----	69%
통 계	570개소	-----	100%

여기서 한문교수 서당을 재래서당으로 보고 나머지 한문, 일어, 산술 등을 교수하는 서당을 개량서당으로 본다면 1921년도 경성부 개량서당은 전체 132개소에서 25개소로 전체의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1935년도에 들어서는 그 비율이

78) 박용후, 『제주도지』 (백영사, 1976), p.94.

79) 국사편찬위원회, 『일제하 한국 36년사』 2권, 1967, p.159.

증가하여 전체 570개소 중 178개로 전체의 31%를 차지하였다.

하지만 <표 14>에서 보듯이 1930년도 제주도내 83개소 서당에서 개량서당은 31개소로 전체의 37%에 달하고 있어 제주의 개량서당 설립이 읍지부에 비해 활발하게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각 도별 개량서당의 상황을 통계 내어 보면 북부지방이 경기도를 제외한 남부지방에 비하여 개량서당의 비중이 훨씬 높았다.⁸⁰⁾ 그러나 제주도는 한반도의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량서당이 비중이 타지방에 비해 월등하게 높았는데, 이를 통해 제주도민의 신교육에 대한 갈망을 짐작 할 수 있다.

특히 3·1운동 직후 개량서당은 도내 각지에 설립되어 공립학교에서 포용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공립학교와 유사한 교과과정을 가르쳤는데 1923년도 말 당시 개량서당은 공립학교 보다 더 많은 학생들을 수용하였다. 당시 제주도내 공립보통학교가 9개교 34학급으로 학생수가 2,499명인데 반해 개량서당은 47개소로 학생수는 3,432명 이었다.⁸¹⁾

이렇듯 보통학교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아동들이 개량서당으로 몰리게 되자 보통학교에 버금가는 규모를 가진 개량서당이 도내에 속속 등장하게 된다.

1928년 현재 제주도의 개량서당은 총 25개 서당 중 52%인 13개 서당이 교사

80) 1918년 8월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경기도를 제외하면 북부지방이 남부지방에 비하여 개량서당 비중이 훨씬 높았음을 알 수 있다.

개량서당의 도별 상황

지방 서당수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황해	평북	평남	강원	함남	함북	계
30인 미만 개량서당	364	32	87	43	67	72	55	213	222	155	114	315	108	1,847
30인 이상 개량서당	24	2	5	3	15	5	18	23	17	61	18	32	30	253
30인 이상 한문서당	12	3	2	8	15	0	41	33	7	69	9	46	5	250
기타	1,901	633	1,149	1,008	1,370	1,175	1,355	2,599	1,567	1,842	1,804	1,402	311	18,116
서당총수	2,301	670	1,243	1,162	1,467	1,234	1,469	2,868	1,813	2,127	1,945	1,795	454	20,548
개량서당수	388	34	92	46	82	7	73	236	239	216	132	347	138	2,100
개량서당 백분율	16.9	5.1	7.4	4.0	5.6	6.2	5.0	8.2	13.2	10.2	6.8	19.3	30.4	10.2

典據: 조선총독부, 「서당상황」 『조선휘보』, 1919년 8월, pp.90~91.

81) 제주도청, 『未開의 寶庫 濟州島』, 1924, pp.40~42.

가 2인 이상이었고, 1개소를 제외한 24개 개량서당은 학생수가 30인을 훨씬 초과하여 매 서당평균 학생수가 63.5명에 달하였다.⁸²⁾

개량서당은 교과에 있어서 근대교과를 도입하고 교원도 신교육을 받은 자들로 구성하여 국민교육과 문맹퇴치 그리고 민족의식 양양에 공헌을 하였는데 가장 큰 공헌은 교육인구 저변확대를 가능하게 한 점이었다.

이렇게 개량서당이 민족교육 및 초등교육의 역할을 수행하며 그 수가 급증되자 관망하던 일제는 1918년 「서당규칙」을 발표하여 서당에 대한 탄압을 가하기 시작하는데, 이러한 탄압현상은 제주도에서도 나타난다.

1922년 가파도에 신유의숙(辛酉義塾)은 민족의 자각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김성숙에 의해 설립되었다. 그리하여 당시 가파도는 울산으로 출육한 출가참여를 제하고는 문맹자가 없을 정도로 문맹퇴치가 잘 되어 있었다. 당시 재적 학생수는 30여명에 달하였으며 교과목으로는 수신, 일본어, 조선어, 한문, 산술, 지리, 이과, 체조, 도화, 직업, 창가를 취급하였다. 하지만 이 사숙의 목표로 쓰인 무궁화가 벌미가 되어 김성숙은 일본관현에 연행되어 옥고를 치루었고 서당은 중도폐설(1932.4~1933.4)되어진다.⁸³⁾

일제는 1918년에 제정된 「서당규칙」을 1929년 다시 개정함으로써 서당의 민족교육 보루로서의 기능을 상실시키고, 공립보통학교나 간이학교와 마찬가지로 초등교육을 통해 「충량한 국민」 즉, 한국인을 충량한 일본인화 시킨다는 동화교육의 도구로 철저히 전략하고 만다. 또한 일제는 개량서당의 교과과정을 통제하고 개량서당을 일제가 직접 지배하는 공립보통학교로 개편해 나가는 정책을 취한다.

82) 박래봉, 「일제통치하의 서당교육의 실태-제주도 I -, 『한국교육사학』 제6집 (한국교육학회교육사연구회, 1984), p.111.

제주도 서당교사 수에 의한 서당 구분

서당 교사 수	1인	2인	3인	4인	계
서당 수	12	10	2	1	25

제주도 서당 학생 수에 의한 서당 구분

서당 학생 수	30인 미만	30~60인	61~99인	100인 이상	계
서당수	1	15	4	5	25

83) 제주도교육연구원, 『제주의 서당교육』, 1994, p.328.

여기서 일제의 서당교육정책을 중심으로 도내 개량서당의 현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5> 제주도내 설립연도별 개량서당 수⁸⁴⁾

지 역 시 기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계		잔여수
	창설	폐지	창설	폐지	창설	폐지	창설	폐지	창설	폐지	
제1차 서당교육정책기 (1908년~1929년 이전)	13	2	7	1	30	8	11	2	61	13	48
제2차 서당교육정책기 (1929년~1945년 이전)	3	7	4	4	6	16	4	8	17	35	30
해방 이후 (1945 이후)	-	4	-	3	-	4	-	1	-	12	18
연 대 미 상	2	5	-	3	-	8	-	4	2	20	-
계	18	18	11	11	36	36	15	15	80	80	

<표 15>에서 주목되는 점은 제1차 서당교육정책기 설립된 개량서당의 수가 61개소인데 반해 일제의 탄압과 장려가 심화되던 제2차 서당교육정책기에는 설립 17개소, 폐지 35개소로 나타나고 있어 이 시기 개량서당이 큰 타격을 받았음을 짐작 할 수 있다.

제1차 서당교육정책기와 제2차 서당교육정책기의 시기별 개량서당의 폐지원인을 『제주의 서당교육』(1994)의 서당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① 제1차 서당교육정책기 제주도 개량서당의 폐지원인⁸⁵⁾

제1차 서당교육정책기 개량서당의 폐지원인은 학생수 부족으로 인한 폐지, 보

84) 제주도교육연구원, 『제주의 서당교육』, 1994에서 조사한 실태를 참고로 정리하였음.

문헌상 제주도에는 촌락별로 많게는 5~6개소, 적게는 2~3개소 서당이 산재되어 있었다고 되어 있어 촌락을 행정단위인 일개리(一個里)로 본다면 일제강점기 제주도는 167개리(자연 부락수 343개소)였으므로 1개리에 서당이 평균 1개소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제주의 서당교육』에서 조사한 수보다 더 많은 수의 서당이 존재하고 있었으리라 추론된다.

85) 제주도교육연구원, 『제주의 서당교육』, 1994와 박래봉, 「일제통치하의 서당교육의 실태-제주도 I-」, 『한국교육사학』 제6집 (한국교육학회교육사연구회, 1984), 각 지역 향토지의 서당 실태 조사 결과를 요약 정리하였다.

통학교 설립으로 인한 폐지, 훈장의 사망 및 이주로 인한 폐지, 일제의 탄압으로 인한 폐지, 서당의 합병으로 인한 폐지로 나눌 수 있다.

【학생수 부족으로 폐지된 예】

신명사숙(新明私塾)

소재지: 북제주군 애월읍 팍지리 , 설립연도: 1916년 , 폐지연도: 1925년

재적 학생수: 40여명, 서당규모: 초가 5칸.

폐지사유: 인근에 애국 심상소학교가 건립되어 학생들이 심상소학교로의 입학을 원하여 학생수가 줄어들음.

육영학원(育英學院)

소재지: 구좌읍 종달리 1742-2번지 , 설립연도: 1923년 , 폐지연도: 1926년

재적 학생수: 20여명, 서당규모: 초가 2칸. (후에 양철집으로 개조)

폐지사유: 1926년 8월에 이웃마을 하도보통학교로 입학하는 학동수가 많아져서 서당의 학생수 부족과 경영난으로 인해 폐지

【보통학교 설립으로 폐지된 예】

신성사숙(新成私塾)

소재지: 남제주군 남원읍 의귀리 , 설립연도: 1922년 , 폐지연도: 1925년 ,

재적 학생수: 약 60명 , 서당규모: 기와 5칸 방2개 ,

폐지사유: 남원보통학교 인가로 폐지.

공진사숙(共進私塾)

소재지: 애월읍 애월리 1736번지 , 설립연도: 1920년 , 폐지연도: 1922년 ,

서당규모: 부지 412평

폐지사유: 1922년 신우공립보통학교로 승격.

환풍정사숙(喚風亭私塾)

소재지: 제주시 화북동 , 설립연도: 1920년 , 폐지연도: 1926년 ,

폐지사유: 1926년 7월 7일 화북사립보통학교로 승격되어 폐지.

영명사숙(英明私塾)

소재지: 구좌읍 하도리 굴동 , 설립연도: 1918년 , 폐지연도: 1923년 ,

폐지사유: 1923년 4월 5일 사립하도보통학교의 설립으로 폐지.

동서서숙(東西書塾)

소재지: 구좌읍 동김녕리 , 설립연도: 1922년 , 폐지연도: 1923년 ,

재적 학생수: 약 40명

폐지사유: 1923년 구좌공립보통학교의 설립으로 폐지.

신명사숙(新明私塾)

소재지: 조천읍 조천리 , 설립연도: 1914년 , 폐지연도: 1922년 ,

폐지사유: 조천공립보통학교의 개교로 폐지.

【훈장의 사망 및 이주로 폐지된 예】

사천숙(沙川塾)

소재지: 제주시 오라2동 , 설립연도: 1916년 , 폐지연도: 1926년 ,

재적 학생수: 30여명 , 서당규모: 초가 4칸 ,

폐지사유: 1926년 교사 이주로 폐지

【일제의 탄압으로 폐지된 예】

문음서숙(文陰書塾)

소재지: 제주시 오라2동 연미부락 , 설립연도: 1916년 , 폐지연도: 1925년 ,

재적 학생수: 25명 내외 , 교육목표: 문자 해독 및 독립정신 고취

폐지사유: 독립정신을 고취시킨다는 이유로 일제의 탄압을 받고 폐지.

한남의숙(漢南義塾)

소재지: 대정읍 모슬포 , 설립연도: 1925년 , 폐지연도: 1928년 ,

폐지사유: 일제의 탄압에 의해 폐지. (자료: 『동아일보』, 1928년 12월 28일자)

【합병으로 폐지된 예】

보명학사(普明學舍)

소재지: 구좌읍 행원리 , 설립연도: 1909년 , 폐지연도: 1923년 ,

재적 학생수: 20~30명 , 서당규모: 향사이용 (약 20평)

폐지사유: 월정리에 소재한 永信學舍와 합병함.

영신학사(永信學舍)

소재지: 구좌읍 월정리 , 설립연도: 1921년 , 폐지연도: 1923년 ,

재적 학생수: 20~30명 , 서당규모: 향사이용 (약 15평)

폐지사유: 행원리에 소재한 普明學舍와 합병하여 후에 사립중앙보통학교 설립.

② 제2차 서당교육정책기 제주도 개량서당의 폐지원인⁸⁶⁾

제2차 서당교육정책기 개량서당의 폐지원인은 학생수 부족으로 인한 폐지, 일제의 탄압으로 인한 폐지, 근대학교로의 전환에 인한 폐지 등이 있다.

【학생수 부족으로 폐지된 예】

하가개량서당(下加改良書堂)

소재지: 북제주군 애월읍 하가리 , 설립연도: 1925년 , 폐지연도: 1935년 ,

재적 학생수: 40명 , 서당규모: 기와집 큰방 1개 ,

폐지사유: 보통학교 선호로 취학 학동수가 줄어 폐지.

일신서당(日新書堂)

소재지: 남제주군 성산읍 신천리 , 설립연도: 1934년 , 폐지연도: 1943년 ,

86) 제주도교육연구원, 『제주의 서당교육』, 1994와 박래봉, 「일제통치하의 서당교육의 실태-제주도 I-」, 『한국교육사학』 제6집 (한국교육학회교육사연구회, 1984), 각 지역 향토지의 서당 실태 조사 결과를 요약 정리한 것임.

재적 학생수: 30명 , 서당규모: 초가(10평정도 방1) ,
폐지사유: 정의보통학교가 표선심상소학교로 이전됨에 따라 통학이 용이하게 되자
학생들이 서당을 떠남.

판포의숙(板浦義塾)

소재지: 한경면 판포리 , 설립연도: 1920년 , 폐지연도: 1942년 ,
재적 학생수: 약 20명 , 서당규모: 석조 기와 (판포리 공회당 20평) ,
폐지사유: 주민들이 신창보통학교로의 취학을 위하여 학생수 부족으로 폐지.

【일제의 탄압으로 폐지된 예】

인명사숙(仁明私塾)

소재지: 남제주군 남원읍 위미리 , 설립연도: 1925년 , 폐지연도: 1938년 ,
재적 학생수: 50명 ,
폐지사유: 일본 경찰의 탄압으로 폐지

신성사숙(新成私塾)

소재지: 애월읍 하가리 , 설립연도: 1936년 , 폐지연도: 1942년 ,
폐지사유: 일제말기 조선어를 가르치다 일본 경찰의 제지를 받음.

신유의숙(新酉義塾)

소재지: 대정읍 가파리 355번지 , 설립연도: 1922년 , 폐지연도: 1932년~1933년 중
도폐지 , 재적학생수: 30여명
폐지사유: 모포로 쓴 무궁화 도안이 빌미가 되어 일제의 탄압을 받음.

【근대학교 설립으로 폐지된 예】

기성의숙(期成義塾)

소재지: 제주시 삼양동 , 설립연도: 1923년 , 폐지연도: 1939년 ,
재적 학생수: 80여명 , 서당규모:金玉現이 회사한 약 900평의 부지 ,
폐지사유: 1935년 인명서당으로 개칭됐다가 1939년 6월에 삼양심상소학교로 개교.

진신학숙(進新學塾)

소재지: 제주도 도두동 , 설립연도: 1921년 , 폐지연도: 1936년 ,
재적 학생수: 약 80~100명 ,
폐지사유: 1936년 9월 사립보통소학교의 설립으로 폐지.

삼공서숙(三共書塾)

소재지: 제주도 아라1동 1698-2번지 , 설립연도: 1928년 , 폐지연도: 1933년 ,
폐지사유: 1933년 아라간이학교 개교로 폐지.

중앙의숙(中央義塾)

소재지: 서귀포시 서호동 351번지 , 설립연도: 1930년 , 폐지연도: 1935년 ,
서당규모: 12간 ,
폐지사유: 1935년 5월 서호간이학교 개교로 폐지.

효둔서숙(孝敦書塾)

소재지: 서귀포시 신호리 , 설립연도: 1920년 , 폐지연도: 1938년 ,
서당규모: 교실(25평), 창고(3평) ,
폐지사유: 1938년 신호공립심상소학교로 승격됨.

진명의숙(進明義塾)

소재지: 서귀포시 강정동 , 설립연도: 1926년 , 폐지연도: 1940년 ,
재적 학생수: 20여명 내외 , 서당규모: 기와 목조(약 30평)
폐지사유: 도순국민학교 설립 개교로 폐지.

육영의숙(育英義塾)

소재지: 서귀포시 도순동 861-1번지 , 설립연도: 1929년 , 폐지연도: 1940년 ,
폐지사유: 1940년 6월 15일 도순국민학교 개교로 폐지.

일신의숙(日新義塾)

소재지: 한림읍 금악리 , 설립연도: 1926년 , 폐지연도: 1944년 ,

재적 학생수; 65명 (남: 49명, 여: 16명) , 서당규모: 향사 이용(약 20평)
폐지사유: 덕수공립국민학교 인가로 폐지.

보성사숙(普成私塾)

소재지: 애월읍 어도리 , 설립연도: 1923년 , 폐지연도: 1940년 ,
폐지사유: 애월교 부설간이학교로 승격되어 폐지.

신흥의숙(新興義塾)

소재지: 애월읍 고성리 , 설립연도: 1923년 , 폐지연도: 1934년 ,
재적 학생수: 60~70명 (고성리, 광령2·3리, 금덕리 출신) , 서당규모: 초가 4칸
폐지사유: 고성간이학교의 설립으로 폐지.

영명의숙(永明義塾)

소재지: 우도면 세화리 상우목동 , 설립연도: 1918년 , 폐지연도: 1938년 ,
재적 학생수: 약 160명
폐지사유: 1938년 4월 16일 사립연평심상소학교의 개교로 폐지.

창흥사숙(昌興私塾)

소재지: 조천읍 북촌리 , 설립연도: 1921년 , 폐지연도: 1944년 ,
폐지사유: 1944년 조천동국민학교의 개교로 폐지.

선명사숙(善明私塾)

소재지: 조천면 선흘리 , 설립연도: 1925년 , 폐지연도: 1936년 ,
폐지사유: 선흘간이학교로 개교되어 폐지.

신덕사숙(新德私塾)

소재지: 조천면 함덕리 , 설립연도: 1927년 , 폐지연도: 1937년 ,
폐지사유: 1937년 9월 1일 함덕공립보통학교 개교로 폐지.

개량서당(改良書堂)

소재지: 조천면 대흘리 , 설립연도: 1938년 , 폐지연도: 1941년 ,

폐지사유: 대흘간이학교 개교로 폐지.

보창의숙(普昌義塾)

소재지: 한경면 고산리, 설립연도: 1918년, 폐지연도: 1940년 폐지,
재적 학생수: 80~90명, 서당규모: 기와 50~60평(교실 2, 교무실 1),
폐지사유: 1940년 4월 사립고산심상소학교 설립으로 폐지.

대동서당(大東書堂)

소재지: 대정읍 보성리 1216번지, 설립연도: 1935년, 폐지연도: 1940년 .
재적 학생수: 15~30명,
폐지사유: 사립보성심상소학교의 개교로 폐지.

의문의숙(疑問義塾)

소재지: 대정읍 무릉리, 설립연도: 1922년, 폐지연도: 1940년,
재적학생수: 40~60명,
폐지사유: 1940년 5월 7일 무릉공립심상소학교의 개교로 폐지.

이렇듯 제1차 서당교육정책기와 제2차 서당교육정책기 개량서당의 폐지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개량서당이 근대교육기관 전환에 인한 폐지였다.

물론 근대교육기관으로 전환 되지 않고 개량서당으로 그냥 남아 있는 경우도 많았다. 한 지역에 서당이 하나만 있었던 것이 아니어서 1면 1교 범위로 보통학교가 설립되기 위해 모체가 되었던 서당 외에 전환되지 않고 남아 있었던 서당의 수가 더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제의 통치가 본격화 되면서부터 서당교육은 그 역할에 분명한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많은 개량서당들이 근대식 초등교육기관으로 전환되었고, 남아 있는 서당들도 「서당규칙」으로 규제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내 서당의 존속은 계속되었으며 생도수도 증가 추세를 나타냈음을 <표 16>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16> 제주도 서당일람⁸⁷⁾

연 도	서당수	교원수	학 생 수			비 고	통계출전
			남	여	계		
1929	53	83	2,309	51	2,360		濟州島便覽
1930	52	77	1,982	27	2,009		全南事情誌
1935	64	81	?	?	2,352		濟州島勢要覽
1937	69	90	?	?	3,254		濟州島勢要覽
1938	63	89	3,397	296	3,693		全南の教育と宗教
1939	59	86	3,280	418	3,698	여교원 1명	濟州島勢要覽

<표 16>에서 주목되는 점은 여학생수의 증가로 1929년 51명이던 여학생 수가 10년 뒤인 1939년에는 약 8배가 증가된 418명에 달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여성의 근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성도 무엇인가 민족을 위한 활동을 하겠다는 의욕과 여성이라도 서당교육 정도는 가르쳐야 한다는 서민층의 결의의 일단이 아닌가 한다. 또한 1939년도에는 처음으로 여교원이 1명 나타나는데 이는 여자생도의 대폭적인 증가에 부응한 현상이라 하겠다. 조선총독부 『통계연보』의 서당누년통계표(1911년~1942년)⁸⁸⁾에 의하면 우리나라 서당에 여교원이 처음 진출한 것은 1917년으로 이후 꾸준한 증가를 보이다가 1934년과 1939년 그리고 1942년에 급증되는 현상을 보이는데 제주도의 경우 1939년의 증가에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지금까지 제주도 개량서당의 설립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제주도의 경우 서당의 본격적인 활동은 1920년대에 들어서부터 활발해졌으나 그 전초(前哨)는 이미 개화기에서부터 성숙되고 있었다. 개화기 제주도에는 여전히 한학훈도의 전통서당이 현저한 상태였으며 그 명맥은 해방 후까지 이어져 왔다. 이러한 가운데서 새로운 형태의 교육체제에 의해 근대초등교육기관이 출현되고 있었다. 따라서 개화기 당시 제주도 교육의 현실은 일종의 과도기적 형태를 띠고 있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다.⁸⁹⁾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볼 때, 전통적 교육에서 근대 교육체제로의 전환을 가져오는 징검다리 역할을 잘 수행한 개량서당

87) 문창규, 「일제하 제주도 초등교육기관의 형성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p.21.

88) 조선총독부, 『통계연보』, 1929~1944년.

89) 양진진, 「개화기 제주도 교육사 연구」, 『제주도사연구』 제4집 (제주도연구회, 1995), p.67.

은 전통서당을 기반으로 한학훈도 위주의 교과과정 대신 신학문의 내용을 병행하여 가르침으로써 당대의 사회적 변화에 부응하고자 노력하였던 기관으로 자생적 근대교육의 맹아(萌芽)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⁹⁰⁾

3. 개량서당의 운영 실태

제주도내 개량서당이 일제의 탄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유지·운영될 수 있었던 이유는 제주도민의 높은 교육열과 자발적이고 체계적인 경영방침 때문이었다.

박래봉은 「일제통치하의 서당교육의 실태 -제주도 I-」에서 경영주체를 기준으로 서당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그 실태를 조사하였다.⁹¹⁾ 그가 분석한 첫 번째 유형은 공동경영서당으로 제주도의 경우 里民이 공동으로 경영하는 里民공동경영서당이 여기에 속한다. 두 번째 유형은 개인경영서당으로 유지 또는 훈장이 개인적으로 경영하는 서당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서당 경영의 장소는 향사(鄉舍)를 쓰는 경우도 있으며, 명칭은 훈장의 이름을 따서 붙이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박래봉은 서당의 경영형태는 본토에서 북부지방은 공동경영이 많으며, 남부지방으로 갈수록 개인경영이 많은 것이 일반적 경향인데 제주도의 경우 里民공동경영 형태의 공동경영서당이 많은 특징이 있다고 하였다.

다음은 『未開の 寶庫 濟州島』에서 소개된 제주도 개량서당의 경영 상황이다.

“최근 2~3년간에 도민의 교육열이 높아졌기 때문에 각 면에 개량서당이 속속 증설되어 합계 47개소, 교원 수 107명, 학동 수 3,432명이며, 공립학교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과잉아동을 수용하여 공립보통학교와 유사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 경비는 수업료와 관계구민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다. 그 중에는 기본금을 가지고

90) 양진건, 「개화기 제주도 교육사 연구」, 『제주도사연구』 제4집 (제주도연구회, 1995), p.66.

91) 박래봉, 「일제통치하의 서당교육의 실태-제주도 I-」, 『한국교육사학』 제6집 (한국교육학회교육사연구회, 1984), pp.113~120.

기초가 견고한 것도 있으나 설립기초가 빈약하여 시시 흥폐의 변화가 있어 일반적으로 유지 곤란의 경우가 많음은 유감이다. 지금 이후로는 몇 개의 리가 공동경영을 하게 하여 상당한 기금을 적립시켜 그 이자로 경영하게 지도할 필요가 있다.”⁹²⁾

여기서 일제강점기 제주도 개량서당의 운영상황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17> 제주도 개량서당의 운영실태⁹³⁾

지역 \ 유형	개인경영 서당	공동경영 서당
제주시	3	13
서귀포시	-	7
북제주군	8	9
남제주군	2	6
계	13	35

개인경영 개량서당과 공동경영 개량서당의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개인경영 개량서당의 예】⁹⁴⁾

洙原 改良書堂 (북제주군 한림읍 수원리 소재)

⇒ 독지가의 회사와 학생들의 월사금(농·수산물)으로 운영.

金陵書堂 (북제주군 한림읍 금능리 소재)

⇒ 학생들의 월사금(현금 40~50전)으로 운영.

新明私塾 (북제주군 애월읍 광지리 소재)

⇒ 학생들의 월사금(1년에 2원)으로 운영.

92) 제주도청, 『未開の寶庫 濟州島』(제주: 제주도청, 1924), p.42.

93) 제주도교육연구원, 『제주의 서당교육』, 1994와 박래봉, 「일제통치하의 서당교육 실태-제주도 I-」 『한국교육사학』 6집, 1984에서 조사한 실태를 토대로 정리하였음.

94) 제주도교육연구원, 『제주의 서당교육』, 1994와 박래봉, 「일제통치하의 서당교육의 실태-제주도 I-」, 『한국교육사학』 6집 (한국교육학회교육사연구회, 1984), 각 지역 향토지의 서당 실태 조사 결과를 요약정리한 것임.

下加改良書堂 (북제주군 애월읍 하가리 소재)

⇒ 자가 농업 및 학생들의 월사금(월 10전)으로 운영.

龍水書堂 (북제주군 한경면 용당리 소재)

⇒ 학생들 보호자가 모여 결의에 의해 부담함.(월 25원 정도)

무동改良書堂 (남제주군 안덕면 동광리 소재)

⇒ 학생들의 월사금(여름-보리 2섬, 가을-조나 메밀 2섬)으로 운영.

日進義塾 (남제주군 안덕면 덕수리 2269번지 소재)

⇒ 학생들의 월사금(여름·가을-보리쌀, 겨울·봄-좁쌀을 월별 1인 1되)으로 운영.

沙川塾 (제주시 오라 2동 소재)

⇒ 월사금(매월 1인 양곡 5홉)으로 운영.

育英學院 (구좌읍 종달리 1742-2번지 소재)

⇒ 재적 학생수 20명의 월사금으로 운영.

普明學塾 (구좌읍 행원리 소재)

⇒ 재적 학생수는 20~30명으로 학생들의 월사금으로 운영.

永明義塾 (우도면 세화리 상우목동 소재)

⇒ 학부모회가 조직되어 후원하고 학생들의 월사금으로 운영.

【공동경영 개량서당의 예】⁹⁵⁾

普成書堂 (제주시 영평하동 1057번지 소재)

⇒ 학감(부락 어른)을 중심으로 서당 운영 후원을 조직.

95) 제주도교육연구원, 『제주의 서당교육』, 1994와 박래봉, 「일제통치하의 서당교육의 실태-제주도 I-」, 『한국교육사학』 제6집 (한국교육학회교육사연구회, 1984), 각 지역 향토지의 서당 실태 조사 결과를 요약 정리한 것임.

法還書堂 (서귀포시 법환동 소재)

⇒ 매월 면사무소에서 훈장에게 25원 정도의 월급을 줌

普新書堂 (서귀포시 토평동 소재)

⇒ 훈장에게 국가(일본)에서 월급을 지급하다 후에는 부락민이 세금을 납부하면 면에서 훈장의 월급(처음: 10원, 주임: 20원)을 지급함.

日新書堂 (남제주군 성산읍 신천리 소재)

⇒ 훈장의 보수(여름-보리1말, 가을-조1말)를 마을주민 공동부담.
里長이 중심이 되어 지역 주민들과 후원을 조직하였음.

新成私塾 (남제주군 남원읍 의귀리 소재)

⇒ 훈장 보수는 약 15원 정도로 학동 1인당 연 2회에 걸쳐 50전 납부하였음.
의귀 신성회라는 후원이 조직되었음.

仁明私塾 (남제주군 남원읍 위미리 소재)

⇒ 재정운영은 위미리 미흥 청년회에서 부담하였으며 학생들의 월사금은 30전 정도였음.

普問書堂 (남제주군 안덕면 사계리 2607-1번지 소재)

⇒ 재정운영은 학부모 및 지역사회 후원회에서 예산편성 및 지원하였으며, 훈장 보수는 월 30원 정도였음.

東普義塾 (제주시 봉개동 2080번지 소재)

⇒ 재적 학생수는 200~240명으로 부락민이 공동경영 하였음.

明新義塾 (제주시 노형동 월랑부락 1023번지 소재)

⇒ 재적 학생수는 40명 내외로 부락민과 학부모회가 공동운영.

親進義塾 (제주시 노형동 2350번지 소재)

⇒ 친진회(정존, 광평, 함박이굴, 방일이 부락유지로 조직)가 경영의 주체이고, 학부모

형회가 조직되어 경영을 보조하였음.

義成學塾 (제주시 노형동 소재)

⇒ 재적 학생수는 50여명으로 청년회(경영책임-金基業)가 조직되어 운영하였음.

進修義塾 (제주시 해안동 1819번지 소재)

⇒ 부락민이 공동경영하고 학부형회와 마을 유지가 보조함.

熙文義塾 (제주시 외도1동 253번지 소재)

⇒ 부락공동경영으로 신흥협동조합이 창설되어 운영하였음.

期成義塾 (제주시 삼양동 소재)

⇒ 마을유지 및 里民에 의해 운영.

삼양1동 출신 高元八이 학교설립기금 전액 현금함.

進新學塾 (제주시 도두동 소재)

⇒ 재적 학생수 80~100여명으로 제주흥학회 도두리 지부, 재일본 오사카 도두청년 학회에 의해 운영되어짐.

三共書塾 (제주시 아라1동 1698-2번지 소재)

⇒ 아라1구·2구, 오등동 3개 부락 이민이 공동으로 운영.

日新學塾 (서귀포시 보목리 소재)

⇒ 보목서당조합이 경영의 주체였음.

中央義塾 (서귀포시 서호동 351번지 소재)

⇒ 서호재일제우회의 후원으로 운영.

進明義塾 (서귀포시 강정동 소재)

⇒ 강정동 2구리민이 경영의 주체였음.

育英義塾 (서귀포시 도순동 861-1번지 소재)

⇒ 도순리민에 의해 운영됨.

부락유지 28명이 2천원씩 헌금한 기금으로 이사무소 부지에 학교건물 신축.

養源私塾 (서귀포시 신호리 소재)

⇒ 율라계 (현재 애림계)에 의해 운영됨.

新明私塾 (한림읍 대림리 소재)

⇒ 洞里부담 및 의연금, 월사금으로 운영. (자료: 『동아일보』, 1922년 9월 10일자.)

普成私塾 (애월읍 어도리 소재)

⇒ 부락민과 제일어도친목회에 의해 운영.

甲子義塾 (애월읍 납읍리 소재)

⇒ 청년친목단체 (신성회, 진애회), 학업면려회의 후원단체에 의해 운영.

新興義塾 (애월읍 고성리 진군모를 소재)

⇒ 신흥회, 일진소년회, 부락민의 공동운영.

普成私塾 (구좌읍 평대리 694-1번지 소재)

⇒ 이민에 의해 공동경영 되어짐.

新興義塾 (구좌읍 세화리 소재)

⇒ 재적 학생수는 70명으로 마을이민의 후원으로 운영.

東信書塾 (구좌읍 동김녕리 金文九씨의 사가에서 설립)

⇒ 김녕진풍장학회의 후원으로 운영.

普明私塾 (조천읍 신흥리 소재)

⇒ 全鄉員 및 영창공제회, 청년회의 후원으로 운영. (자료: 신흥리지)

昌興私塾 (조천읍 북촌리 소재)

⇒ 신성회, 창흥사숙후원회(회장: 이봉희), 학부모회(회장: 신승빈)에 의해 운영.

普昌義塾 (한경면 고산리 소재)

⇒ 보창의숙 이사규약에 따라 서당조합(조합장: 한림면장)이 결성되어 후원함.

新成義塾 (한경면 조수리 소재)

⇒ 조수리, 저지리, 청수리. 낙천리 학부모운영위원회가 조직되어 후원함.

漢南義塾 (대정읍 모슬포 소재)

⇒ 모슬포청년회(회장 강문석: 항일인사)가 경영의 주체였음.

新西義塾 (대정읍 가파리 355번지 소재)

⇒ 가파리 어촌계의 후원으로 운영.

仁明私塾 (위미 1리 소재)

⇒ 부락민이 공동경영 함.

앞서 살펴본 실태를 토대로 제주 개량서당의 경영상황 특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도의 개량서당은 사회·문화적 특성에 영향을 받아 공동경영 서당이 많다. 역사적 기록에서 보면 제주사회는 관리의 횡포에 대한 저항적인 노력으로 지역공동생활권을 단위로 상호 결속하여 외부 세력에 대처하여 왔다. 이러한 상황은 사회생활에 있어서 혈연적 의미의 약화와 결부되면서 제주사회를 지연성(地緣性)이 강한 사회로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

지연적 결속의 범위로 중요한 단위는 마을이었는데 마을은 지역 공유제의 주체이며 사회 조직의 중요한 기반이었다. 마을은 경제조직의 지역단위이며 신앙생활의 단위였을 뿐 아니라 자치적 의사결정 단위로서의 성격도 지니고 있었다. 대부분의 계조직이 마을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점은 마을이 지역 조직의 중요한 단위가 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며 육지부에 비하여 마을 공동경영서당이 많은

것도 이런 연유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하겠다.

조선총독부 조사 자료 제29집인 『생활상태조사(其二) 제주도』는 <표 18>와 같이 里民공동경영의 25개소 서당을 들고 있다.

<표 18> 里民공동경영의 서당⁹⁶⁾

명 칭	직 원 수	생 도 수	경 영
신 진 의 숙	남 2	남 100	里民經營
보 성 숙	남 2	남 30	同
온 신 숙	남 1	남 35	同
신 진 숙	남 1	남 25	同
삼 성 숙	남 1	남 45	同
진 흥 숙	남 1	남 40	同
신 흥 사 숙	남 1	남 30	同
이 문 의 숙	남 2	남 100	同
신 유 의 숙	남 2	남 92	同
광 선 의 숙	남 2	남 20	同
양 원 의 숙	남 2	여 20	同
육 영 학 원	남 3	남 30	同
영 명 사 숙	남 4	남 80	同
영 흥 의 숙	남 1	남 160	同
	여 1	남 20	同
기 성 의 숙	남 2	여 20	同
의 성 숙	남 2	남 60	同
신 성 의 숙	남 1	남 50	同
일 신 의 숙	남 1	남 30	同
취 진 학 숙	남 2	남 60	同
신 명 숙	남 2	남 70	同
보 성 의 숙	남 1	남 50	同
신 흥 숙	남 2	남 120	同
신 성 의 숙	남 1	남 40	同
일 신 의 숙	남 1	남 85	同
보 창 숙	남 1	남 55	同
	남 3	남 120	同
25개소	총 43명(남42, 여1)	총 1,587(남1,547, 여40)	

이 자료에 의하면 1929년 현재 里民이 공동경영 하는 서당의 교사는 43명, 재

96) 조선총독부, 『생활상태조사(其二) 제주도』, 1929, p.144.

적 학생 수는 1,587명으로 동년의 공·사립보통학교 재적 학생 수 3,390명과 비교해 볼 때 반수(半數)에 가까운 학생이 里民공동경영 서당에서 수학하였다.

이렇듯 제주도에 공동경영서당이 많이 산재해 있는 이유를 종합해보면 ① 육지의 농촌에 비하여 촌락구조가 대규모이므로 경영자금을 조달하기가 쉽다는 점, ② 수눌음(품앗이)등의 어휘에서 찾을 수 있듯이 노동도 공동으로 하는 도민의 공동체의식이 강하다는 점, ③ 타지방에 비하여 경제적 여유가 있고 생활상태가 평균화되어 빈부의 차가 적다는 점, ④ 도민의 교육열이 높은 점 등을 들 수 있다.⁹⁷⁾

둘째, 훈장보수인 서채(書債)를 노동으로 대신 제공하는 경우가 있었다.

훈장에게 제공하는 보수는 대체로 현지생산 곡물이나 현금 등을 연말, 년 2회, 매월에 걸쳐 교본에 따라 경제능력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제주도가 경우 훈장 보수의 내용·납입시기·납입정도에 있어서는 육지부와 별 차이가 없으나 서채를 훈장 집의 밭일, 김매기 등 얼마간의 노동으로 제공하는 예가 타지방에 비해 현저하게 많았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이유로 서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학업을 중단하는 예가 적었으므로 수업료 때문에 중퇴하는 경우가 2할에 가까웠던 공립보통학교를 대신하여 제주도 교육인구의 저변확대를 이룰 수 있었다.

4. 개량서당의 변천상

제주도는 일찍부터 한학훈도 중심의 전통적인 서당교육이 있어 왔는데 여기에 개량서당까지 합세하면서 서당교육에 관한 한은 다른 지역에 비해 그 열기나 내용이 결코 뒤지지 않았다. 그런데 많은 서당들이 근대학교로 전환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전환은 제주도의 근대교육이라는 것이 서당교육이라는 물적 토대를 그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한다.

이처럼 개량서당을 모체로 한 근대교육기관의 설립은 다음과 같다.

97) 문창규, 「일제하 제주도 초등교육기관의 형성에 관한 연구」(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p.22.

<표 19> 개량서당이 근대학교로의 전환⁹⁸⁾

서 당 명	변 경 명	설립년	변경년	비 고
김풍헌書堂 가시밭書堂	서호공립국민학교		1943	설립 년 불명
義貞學塾 新明私塾	조천보통학교	1903 1914	1922	
私立漢一學塾 普明學舎 永信學舎	사립대정학교 사립중앙보통학교	1908 1909 1921	1911 1923	합병되어 설립됨
普明塾	구우공립보통학교 한림공립심상소학교	1914	1923 1938	
徽文義塾 培英義塾 廣濟義塾	외도공립심상소학교 강정국민학교	1914 1917 1922	1939 1946	
昌興私塾 永明義塾 普昌義塾 光明義塾	조천동공립보통학교 사립연평심상소학교 사립고산심상소학교 동광간이학교	1918 1918 1918 1918	1943 1938 1940 1934	동광개량서당
親進義塾	노형공립국민학교	1918	1945	1948년 4·3사건으로 폐설 →도두교노형분교→노형교
英明私塾	사립하도보통학교	1918	1923	
進修義塾	좌면공립보통학교 중문공립보통학교	1920	1926 1935	
涯月共進私塾 禾北義塾 新興義塾 辛酉義塾 東西書堂 武陵疑問義塾 普成私塾 期成義塾 養源私塾 新興義塾 普成書堂	신우공립보통학교 화북사립보통학교 용수서당(보통소학교) 가파공립국민학교 구좌공립보통학교 무릉공립심상소학교 애월간이학교 삼양공립심상소학교 신호공립국민학교 고성간이학교 어도간이학교	1920 1921 1922 1922 1922 1922 1923 1923 1923 1923 1923	1922 1926 1936 1946 1923 1940 1939 1941 1934 1940	중도폐설(1932.4~1933.4)
新成義塾	사립신성학교	1924	1938	조수개량서당학교로 명칭 바뀜(1933년)
善明私塾 普成私塾 日新義塾 都坪明進學塾 新德私塾 三共書塾	선흘간이학교 평대공립국민학교 덕수공립국민학교 도평공립학교 함덕공립보통학교 아라간이학교	1925 1925 1926 1927 1927 1928	1936 1945 1944 1947 1937 1933	

98) 양진진, 「일제하 초등교육 개설운동」, 『초등교육연구』 제1집, 1992, p.36 와 제주도교육위원회, 『제주교육연혁지(Ⅱ)』, 1987, 그리고 제주도교육연구원, 『제주의 서당교육』, 및 문창규, 「일제하 제주도 초등교육 기관의 형성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p.25~28 등을 참고하여 뽑은 자료임.

育英義塾	도순국민학교	1929	1940	
進明義塾		1926		
日新書堂	송당간이학교	1929	1937	
倪來義塾	예래간이학교	1930	1944	
中央義塾	서호간이학교	1930	1935	
今岳書堂	금악공립국민학교	1931	1944	
終達育英私塾	사설학원	1931	1945	
	종달국민학교		1951	
新昌私塾	신창공립심상소학교	1933	1938	
創林書堂	도두사립보통학교	1933	1936	
西廣書堂	서광간이학교	1934	1939	
吐坪書堂	도평공립국민학교	1935	1946	
東晉義塾	봉개공립국민학교	1935	1945	
大東書堂	사립보성심상소학교	1935	1940	
光明書堂	광령간이학교	1935	1941	
大屹共同書堂	대흘공립국민학교	1938	1941	
改良書堂	대흘간이학교	1938	1941	
私設改良書堂	관포국민학교	1939	1946	

<표 19>에서 확인되듯이 일제시대 초등교육기관 대부분이 개량서당을 그 모태로 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일제가 그들의 교육방침수행에 이용하기 위하여 서당에 대한 활용책과 개편책을 간구하였기 때문이다.

1937년도 당시 총독부 학무국장의 견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당이 소위 민간 초등교육 기관으로서 오랜 연혁을 가진 보편적 존재이나 서당의 장점은 교사(校舍) 및 설비(設備)가 극히 간이(簡易)하여 그 유지비가 극히 소액으로 족(足)하여 여하한 벽촌이라도 있을 수 있으며, 단점은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날 서당에 자제를 보내는 자는 대체로 순소작농(純小作農) 기타 세농(細農)으로 보통학교에 내는 수업료 기타 학비를 낼 수 없는 가정이고 교육내용도 주로 한적(漢籍)의 독해 등 실제생활과는 전혀 동떨어진 것이다. 결국 생활의 패참자(敗慘者)로서 나락(奈落)의 밑바닥에 떨어지는 결과가 된다. 이로써 서당의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보(補)하여 부락개학(部落皆學)이라는 하나의 새로운 기도(企圖)를 제언한다.⁹⁹⁾

이에 일제는 개량서당을 공립보통학교나 간이학교로 개편해 나가는 정책을 취

99) 이진석, 「일제하 개량서당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5, p.65.

하여 식민지교육기관으로 이용하려하였다. 이로 인해 일제는 서당시설에 약간의 개선을 가하는 등의 적은 투자만으로 초등교육기관 부족을 해결할 수 있었다.

제주의 경우 일제시대 초등교육기관 대부분이 개량서당을 기반으로 설립 되었다는 사실은 제주교육의 내재적 발전 법칙을 규명하는 데 있어 제주도 근대 교육의 특징과 그 지향점의 성격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귀중한 시사이다.

‘개량서당의 전환’이라는 것이 ‘식민지제도 교육의 구축’이라는 맥락과 곧바로 연계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전환의 외연과 내포를 조심스레 진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¹⁰⁰⁾

1) 사립보통학교로의 전환

개화기 이후 사립학교의 설립은 서당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많은 인사들이 설립하였고 이들은 학교를 신축하기도 하였지만 개인 집 또는 서당, 그리고 창고 등을 변형시켜 교사(校舍)로 사용하면서까지 학생에게 신학을 교육하였다.¹⁰¹⁾

위에서 보듯 사립학교를 설립할 때 신축하는 대신 서당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볼 때 개화기의 사립학교는 전혀 새로운 형태인 사설 교육기관의 탄생이라기 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서당에서 신지식을 교수하게 됨으로써 근대식 사립학교로 변모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¹⁰²⁾

일제는 사학을 민족주의의 본산지로, 또 배일사상의 거점으로 보고 1911년에 공포하였던 「사립학교규칙」을 1915년 3월 다시 개정함으로써 사학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하였다. 이리하여 1910년에 2,080교에 달했던 사립학교가 1915년에는 1,154교로, 다시 1921년에 667교, 1923년에는 649교로 대폭 감소되기에 이른다.¹⁰³⁾

100) 양진건, 「일제하 제주도 학교설립운동」, 『탐라문화』 제24호, 2004, p.33.

101) 김상기, 「한말 사립학교의 교육이념과 신교육국운동」,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제주도교육연구원, 『제주의 서당교육』, 1994, p.29에서 재인용.

102) 반산건, 「서당교육의 사회·교육적 역할」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pp.57~58.

그런데 3·1운동 이후인 일제 중기에 들어와 사학은 다시 활기를 찾기 시작하여 비록 양적으로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질적으로는 그나마 다소의 성장을 보았으며 민간독지가들은 사재를 기꺼이 내놓아 사학을 키워 주었다.¹⁰⁴⁾

일제하 제주도 사립초등학교기관 설립의 공통된 특징을 본다면 그 시기가 대부분 3·1운동 이후라는 점과 마을 유지들의 공로가 컸다는 점이다. 이는 다른 무엇보다 3·1운동 이후 시행된 문화정치라는 유희적 시기를 개명된 지식인들이 교육적으로 적극 활용하였음을 시사한다.

일반적으로 사립학교의 설립은 그것에 투자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이 있는 독지가들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외래자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다반수인데 제주의 경우에는 개인의 재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부락공동부담(部落共同負擔)이라는 민립학교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

제주도의 경우 주민들의 노력에 의하여 학교가 설립된 예는 많지만 화북사립보통학교의 설립은 그 가운데에도 대표적이다.

1921년 제주도 제주면 화북리 아동교육기관으로는 종래 구 한문 사숙뿐임으로 이를 개탄하던 里內 某某 유지 제씨의 발론으로 각 사숙 경영자를 망라하여 본년 3월 5일에 신교육기관인 화북의숙을 설립하고 이를 완전한 학교로 성립시키고자 약 7백호 里民의 분담으로 교사(校舍)를 신건축하여 불원간 사립화북학교 인가원(認可願)을 당국에 신청할 것이다.¹⁰⁵⁾

이렇듯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열의로 도내 개량서당은 사립학교로 변모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공동체적 결속력을 모태로 학교가 설립·운영되었다는 점을 통해 제주도민들의 단결력과 높은 교육열을 짐작할 수 있다.

도내 개량서당이 사립보통학교로 전환된 예는 <표 2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03) 제주도교육청, 『제주교육행정발전사』, 1991, p.249.

104) 제주도교육위원회, 『제주교육사』, 1979, p.67.

105) 『동아일보』, 1921년 10월 12일자.

<표 20> 개량서당이 사립보통학교로의 전환¹⁰⁶⁾

서 당 명	변 경 명	설립년	변경년	비 고
私立漢一學塾	사립대정학교	1908	1911	
普明學舍	사립중앙보통학교	1909	1923	합병되어 설립됨
永信學舍		1921		
普昌義塾	사립고산심상소학교	1918	1940	
永明義塾	사립연평심상소학교	1918	1938	
英明私塾	사립하도보통학교	1918	1923	
禾北義塾	화북사립보통학교	1921	1926	
新興義塾	용수서당(보통소학교)	1922	1936	
新成義塾	사립신성학교	1924	1938	조수개량서당학교로 명칭 바뀜(1933년)
終達育英私塾	사설학원	1931	1945	
	중달국민학교		1951	
創林書堂	도두사립보통학교	1933	1936	
大東書堂	사립보성심상소학교	1935	1940	

여기서 대동서당은 1935년 일제의 종용에 따라 재래서당을 통폐합하여 창설된 서당으로 1937년 대정사설강습소로 명칭이 변경되어 인성, 보성, 안성, 신평, 구역 등 5개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다가 1940년 7월에 사립보성심상소학교의 모체가 되었다.¹⁰⁷⁾

이렇듯 도민들의 근대교육에 대한 갈망은 재래서당을 개량서당으로, 또다시 사설강습소에서 사설보통학교로 그 형태를 변모시켰다.

2) 공립보통학교로의 전환

한국인이 관공립 초등교육에 대한 견해는 크게 두 가지 시기로 구분되어 진다. 첫 번째 시기는 1905년 이후에서 1920년대까지로 정부주도의 관공립 보통학교에 대한 거부와 취학기피 현상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시기이고 두 번째 시기는 1920년 이후로 이 시기 보통학교에 대한 취학기피 현상은 교육적 갈망으로 전환되어 한국인의 학구적 교육열이 학교 설립 요구로 나타나기에 이른다.

이에 제주에서도 공립보통학교가 1920년대 이후 급속도로 설립되어 진다.

106) 양진건, 「일제하 초등교육 개설운동」, 『초등교육연구』 제1집, 1992, p.36 와 제주도교육위원회, 『제주교육연혁지(Ⅱ)』, 1987, 그리고 제주도교육연구원, 『제주의 서당교육』, 및 문창규, 「일제하 제주도 초등교육기관의 형성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p.25~28 등을 참고하여 뽑은 자료임

107) 제주도교육연구원, 『제주의 서당교육』, 1994, p.327.

<표 21-1> 제주도 보통학교 일람(1927년 현재)¹⁰⁸⁾

교 명	수업 연한	설립연도	직 원		학급	학 생 수		
			한국인	일본인		남	여	합
제 주	6	1907. 5	7	6	15	750	148	898
정 의	4	1909. 3	3	1	4	207	5	212
대 정	4	1911. 6	5	1	6	189	1	190
서 귀	4	1920. 10	3	1	6	188	0	188
조 천	6	1921. 10	6	1	7	354	34	388
구 우	4	1923. 9	3	1	6	322	16	338
신 우	4	1923. 9	3	1	5	287	24	311
성 산	4	1923. 9	3	1	5	237	10	247
구 좌	4	1923. 9	2	2	5	252	0	252
서 중	4	1924. 11	4	0	4	151	0	151
추 자	4	1925. 9	3	1	4	110	7	107
좌 면	4	1927. 4	2	0	2	92	0	92
모슬포(부설)		1924. 4			2	91	2	93
송 조(부설)		1923. 4			2	140	0	140

<표 21-2> 제주도 공립심상소학교 일람(1938년 현재)¹⁰⁹⁾

교 명	수업 연한	설립연도	직 원		학급	학 생 수		
			한국인	일본인		남	여	합
제주북	6	1907. 5	10	8	17	847	340	1,187
표 선	6	1909. 3	3	2	5	322	25	347
대 정	6	1911. 6	3	3	6	387	77	464
서귀포북	6	1920. 9	4	3	7	418	86	504
조 천	6	1921. 6	4	2	6	377	99	476
한림서	6	1923. 9	4	3	7	408	88	496
애 월	6	1923. 9	4	2	6	376	53	429
성산포서	6	1923. 9	3	4	6	375	30	405
김 녕	6	1923. 9	4	2	6	361	50	411
남 원	6	1924. 11	3	3	6	362	29	391
추자서	4	1925. 9	2	1	3	149	25	174
중 문	4	1927. 4	2	1	3	197	29	226
안 덕	4	1930. 4	2	1	3	188	18	206
합 덕	4	1937. 7	1		1	68	12	80
신 창	4	1938. 4	1	1	2	135	6	141
성 읍	4	1937. 7	1		1	75	5	80
세 화	4	1938. 5	1		1	67	12	79
신 효	4	1938. 5	1		1	67	13	80

위의 <표 21-1>과 <표 21-2>를 통해 대부분의 공립보통학교들이 1920년 이후에 설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1927년에 비해 1938년도 제주도 보통학

108) 전라남도청, 『전라남도사정지』의 내용 요약.

109) 전라남도청, 『전라남도사정지』의 내용 요약.

교의 실정과 교세가 월등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문제성이 없는 서당을 부족한 초등교육기관으로 적극 활용하고자 공립보통학교로 승격시킨 일제의 서당교육정책의 영향이기도 했다.

<표 22> 개량서당이 공립보통학교로의 전환¹¹⁰⁾

서 당 명	변 경 명	설립년	변경년	비 고
김풍헌書堂 가시밭書堂	서호공립국민학교		1943	설립 년 불명
義貞學塾 新明私塾	조천보통학교	1903 1914	1922	
徽文義塾	외도공립심상소학교	1914	1939	
普明塾	구우공립보통학교 한림공립심상소학교	1914	1923 1938	
培英義塾 廣濟義塾	강정국민학교	1917 1922	1946	
親進義塾	노형공립국민학교	1918	1945	1948년 4·3사건으로 폐설 →도두교노형분교→노형교
昌興私塾	조천동공립보통학교	1918	1943	
進修義塾	좌면공립보통학교 중문공립보통학교	1920	1926 1935	
涯月共進私塾	신우공립보통학교	1920	1922	
武陵疑問義塾	무릉공립심상소학교	1922	1940	
辛酉義塾	가파공립국민학교	1922	1946	중도폐설(1932.4~1933.4)
東西書堂	구좌공립보통학교	1922	1923	
養源私塾	신효공립국민학교	1923	1941	
期成義塾	삼양공립심상소학교	1923	1939	1935년 仁明書堂으로 개칭
普成私塾	평대공립국민학교	1925	1945	
日新義塾	덕수공립국민학교	1926	1944	
新德私塾	함덕공립보통학교	1927	1937	
都坪明進學塾	도평공립학교	1927	1947	
育英義塾	도순국민학교	1929	1940	
進明義塾		1926		
今岳書堂	금악공립국민학교	1931	1944	
新昌私塾	신창공립심상소학교	1933	1938	
東晋義塾	봉개공립국민학교	1935	1945	
吐坪書堂	토평공립국민학교	1935	1946	
大屹共同書堂	대흘공립국민학교	1938	1941	
私設改良書堂	관포국민학교	1939	1946	

<표 22>는 개량서당을 모체로 설립된 공립보통학교의 일람표로 이를 통해 도

110) 양진건, 「일제하 초등교육 개설운동」, 『초등교육연구』 제1집, 1992, p.36 와 제주도교육위원회, 『제주교육연혁지(Ⅱ)』, 1987, 그리고 제주도교육연구원, 『제주의 서당교육』, 및 문창규, 「일제하 제주도 초등교육기관의 형성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p.25~28 등을 참고하여 뽑은 자료임

내 대부분의 공립학교가 개량서당을 모체로 탄생되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조천 보통학교는 1903년 3월에 개설되었던 의정학숙과 신명사숙을 모체로 1922년에 개교하였으며, 당시 제주도의 1읍 12면 중에서 23개리를 포함하는 가장 넓은 면이었던 구우면(한림읍)의 구우보통학교 또한 1914년에 개설되었던 보명숙을 모체로 개교되었다. 구좌보통학교는 1922년 김녕진풍회가 동김녕과 서김녕에 개설하였던 개량서당을 발판으로 삼았고, 좌면보통학교 역시 1920년에 개설된 진수의숙이 그 모체였다. 여기서 우리는 제주도 공립보통학교의 모체가 사립의 개량서당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3) 간이학교로의 전환

일제는 서당을 간이학교로 개편하여 식민지교육기관으로 흡수시키고자 하였다. 물론 서당수로 보아서는 극히 얼마 안 되는 수의 서당이 그 흡수 대상이 된 것이기는 하지만 여하간 일제는 새로운 투자를 하지 않고 서당시설에 약간의 개선만을 가하여 그대로 식민지 교육기관으로 이용할 수 있었다.

1934년 4월부터 간이학교가 전국의 농촌벽지에서 개설되기 시작하여 1937년에는 전국적으로 80개교가 설치되었는데 제주의 간이학교는 <표 23>과 같다.

<표 23> 제주도 간이학교 일람¹¹¹⁾

1939. 3. 31 현재

교 명	면 별	개교일	학급수	직원수	수업년한	학 생 수		
						남	여	합
고성간이학교	애월면	1934.5.1				61	2	63
서호간이학교	서귀면	1934.5.1				41	15	56
난산간이학교	성산면	1935.6.20	모두	모두	모두	61	-	61
선흘간이학교	조천면	1936.5.1	1개	1명	2년	60	19	79
금악간이학교	한림면	1937.6.15	학급			53	17	70
용담간이학교	제주읍	1938.5.10				53	17	70
송당간이학교	구좌면	1938.6.5				38	-	38

<표 23>의 간이학교 개설에 이어 1939년에 동광(안덕면), 구역(대정면) 간이학

111) 제주도청, 『제주도세요람』, 1939, p.48.

교 2개교와 1940년에 어도(애월면), 광령(애월면) 간이학교 2개교, 그리고 1941년에 아라(제주읍), 의귀(남원면), 대흘(조천면) 간이학교 3개교가 설립되어 모두 14개교로 확대된다.

제주도내 간이학교는 대개의 경우 처음부터 간이학교 체제로 설립되었지만 보통학교처럼 개량서당을 모체로 한 경우도 많았다.

어도간이학교가 그 대표적 경우이다. 1923년 설립된 보성서당은 한문선생 한 사람과 신학문 선생 한 사람을 두어 가르치다 1936년 어도 1구의 제일 친우회에서 송금해 온 것과 어도리 친우회에서 부지를 마련한 것을 기반으로 보성서당을 확장하여 1940년에 간이학교로 인가를 받게 된다.

이런 경우는 아라간이학교도 마찬가지여서 1928년 창설된 아라 1리 삼공서당의 호응이 좋아짐에 따라 1933년 이를 모체로 아라간이학교가 설립되었고 이는 해방 후 1945년 10월 아라국민학교로 승격되기에 이른다.

<표 24> 개량서당이 간이학교로의 전환¹¹²⁾

서 당 명	변 경 명	설립년	변경년	비 고
光明義塾	동광간이학교	1918	1934	동광개량서당
普成私塾	애월간이학교	1923	1940	
普成書堂	어도간이학교	1923	1940	
新興義塾	고성간이학교	1923	1934	
善明私塾	선흘간이학교	1925	1936	
三共書塾	아라간이학교	1928	1933	
日新書堂	송당간이학교	1929	1937	
中央義塾	서호간이학교	1930	1935	
倪來義塾	예래간이학교	1930	1944	
西廣書堂	서광간이학교	1934	1939	
光明書堂	광령간이학교	1935	1941	
改良書堂	대흘간이학교	1938	1941	

<표 24>를 통해 개량서당을 모체로 설립된 간이학교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개량서당이 제주의 초등교육기관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다시금 말해주고 있다.

112) 양진건, 「일제하 초등교육 개설운동」, 『초등교육연구』 제1집, 1992, p.36 와 제주도교육위원회, 『제주교육연혁지(Ⅱ)』, 1987, 그리고 제주도교육연구원, 『제주의 서당교육』, 및 문창규, 「일제하 제주도 초등교육기관의 형성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p.25~28 등을 참고하여 뽑은 자료임

IV. 결 론

본 연구는 일제강점기 개량서당의 설립과정과 성격을 제주도를 중심으로 고찰해 봄으로써 개량서당이 제주도민에게 미친 영향에 대하여 밝혔다.

이를 위해

첫째, 일제하 서당교육정책을 통해 일제가 서당에 대해 취했던 태도와 그로인해 변화된 서당교육 과정을 살펴보고,

둘째, 개량서당의 설립배경 및 교육과정 성격을 통해 개량서당의 역할을 고찰하였으며,

셋째, 제주도 개량서당의 실태를 분석하여 개량서당이 제주도민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20년대 민족주의 진영에서 전개한 실력양성운동은 제주도민들의 교육열과 향학열을 불러일으켜 사립보통학교, 개량서당, 의숙, 야학 등이 각지에 속속 설립되었다.

특히 개량서당은 3·1운동 직후 급속도로 설립되어 공립학교에서 포용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근대 교과과정을 가르쳤는데 자금은 수개의 마을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형식을 취했다.

개량서당은 교과에 있어서 근대교과를 도입하고 교원도 신교육을 받은 자들로 구성하여 국민교육과 문맹퇴치 그리고 민족의식 양양에 공헌을 하였는데, 특히 교육시설이 미비하고 의무교육이 실시되지 못한 시대에 있어서 가장 비중이 큰 보조초등교육기관의 역할을 담당하며 농촌지역이나 빈한 서민층에게까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인구 저변확대를 가능케 하였다.

이렇게 개량서당이 민족교육 및 초등교육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그 수가 급증하게 되자 관망하던 일제는 그 방침을 변경하여 「서당규칙」을 발표, 서당에 대한 탄압을 가하였다.

일제의 서당정책은 강·온양면의 이중적 형태로 진행되었는데 기본방침은 일제의 식민지교육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었다. 1918년 제정된 「서당규칙」은 민

족의 근대화를 막고 민족교육기관화의 길을 봉쇄하기 위하여 장려도 완전폐지도 아닌 엉거주춤한 온미한 태도였으나 1929년 개정된 「서당규칙」은 적극적으로 일면 탄압과 일면 보조초등교육기관으로서의 서당장려책을 취하여 식민지교육정책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되는 서당은 강력히 탄압하고, 그 외의 서당에 대해서는 교육내용의 개선, 서당교육에 대한 강습 등을 통하여 초등교육기관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에 개량서당은 민족교육의 보루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공립보통학교나 간이학교와 마찬가지로 초등교육을 통해 “한국인을 총량한 일본인으로 육성”시키려는 동화교육의 도구로 전락하고 만다.

일제는 개량서당의 교과과정을 통제하고 개량서당을 일제가 직접 지배하는 공립보통학교로 개편해 나가는 정책을 취하였는데 그리하여 제주도의 개량서당은 간이학교나 공립학교로의 전환을 맞게 된다.

제주도의 경우 개량서당을 모체로 한 초등교육기관의 탄생은 일제시대 전체에 걸쳐 비교적 많다. 일제강점기 초등교육기관의 대부분이 개량서당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은 제주교육의 내재적 발전 법칙을 규명하는데 있어 제주도 근대교육의 제 특징과 그 지향점의 성격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귀중한 시사이다. ‘개량서당의 전환’이라는 것이 ‘식민지 제도교육의 구축’이라는 맥락과 곧바로 연계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전환의 외연과 내포를 조심스레 진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렇듯 개량서당은 제주도 근대교육의 맹아로서 식민지 제도교육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일제의 식민지 반봉건교육정책에 의해 식민지 엘리트를 배타적으로 재생산하는 반민족적 교육기구로 고착됨으로써 철저히 왜곡되긴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주교육의 저류에 있어서 민족교육의 근간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參 考 文 獻

◆ 資料

『동아일보』, 1920년~1940년.

임홍순, 『조선행정요람』, 조양출판사, 1929.

조선총독부, 『관보』

_____, 『조선총독부 생활상태조사서(其二) -제주도-』, 1929.

_____, 『서당상황』, 1918.

_____, 『조사월보』.

_____, 『조선에 있어서의 서당의 현황』, 1911.

_____, 『조선회보』.

_____, 『통계년보』.

조선총독부학무국, 『조선교육법규례규대전』, 1932.

_____, 『조선교육연감』, 1936.

_____, 『조선의 교육』, 1940.

◆ 單行本

고병오·박용후, 『원대정군지』, 박문출판사, 1968.

국사편찬위원회, 『일제하 한국 36년사(2권)』, 1967.

남제주군, 『남제주군지』, 1986.

노영택, 『일제하 민중교육 운동사』, 탐구당, 1979.

渡部學, 『근세조선교육사연구』, 동경: 웅산각, 1969.

북제주군, 『북제주군지』, 1987.

- 서귀포시, 『서귀포시지』, 1988.
- 손인수, 『한국근대교육사: 1885~1945』,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3.
- _____, 『한국개화교육연구』, 일지사, 1985.
- _____, 『한국교육사연구 I』, 문음사, 1989.
- _____, 『한국교육사연구 II』, 문음사, 1989.
- 전라남도청, 『전라남도사정지』, 경인문화사, 1990
- 정순목 외, 『한국교육사 연구의 새 방향』, 한국교육사연구회, 집문당, 1982.
- 제주도, 『제주도지』 제1권, 1993.
- _____, 『제주도지』 제2권, 1993.
- _____, 『제주도지』 제3권, 1993.
- 제주도교육연구원, 『제주의 서당교육』, 1994.
- 제주도교육위원회, 『제주교육사』, 1979.
- _____, 『제주교육연혁지(II)』, 1987.
- 제주도교육청, 『제주교육행정발전사』, 1991.
- 제주도청, 『미개의 보고 제주도』, 제주: 제주도청, 1924.
- _____, 『제주도세요람』, 제주: 제주도청, 1939.
- 차석기, 『한국민족주의교육의 연구』, 1976.
- 한기언, 『한국교육사』, 박영사, 1963.

◆ 論文

- 김경수, 「서당교육의 가치에 대한 일고찰」, 『교육연구』 제22집,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문제 연구소, 1988.
- 김대현, 「제주도 학교교육의 발전과정에 관한 역사적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한중, 「1920년대 조선교육협회의 교육운동」, 『충북사학』 제8집, 1995.
- 김호일, 「근대사립학교의 설립이념」, 『사학연구』, 23호, 1973.
- 노영택, 「일제하 서당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3.
- _____, 「일제하의 서당연구」, 『역사교육』 제16집, 역사교육연구회, 1974.

- 문창규, 「일제하 제주도 초등교육기관의 형성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 박금림, 「서당교육의 사회적 기능에 관한 고찰」,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2.
- 박래봉, 「일본통치하서당교육의 구체상-전라북도를 중심으로(Ⅱ)」, 『韓』3권 14호, 1974.
- _____, 일제통치하 서당교육의 실태-제주도1-, 『한국교육사학』 제6집, 1984.
- 박종선, 「일제강점기(1920~1930년대) 조선인의 서당개량운동」,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 박진동, 「일제강점기(1920년대) 조선인의 보통교육요구와 학교설립」,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7.
- 반산건, 「서당교육의 사회·교육적 역할」,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 백상철, 「한국서당교육의 선교교육적 접근」,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4.
- 양진건, 「일제하 제주도 학교설립운동」, 『탐라문화』 제24호, 2004.
- _____, 「일제하 제주도 초등교육 개설운동」, 『초등교육연구』 제1집, 1992.
- _____, 「개화기 제주도 교육사 연구」, 『제주도사연구』 제4집, 제주도연구회, 1995.
- 오성철, 「1930년대 한국초등교육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 우용제, 「조선후기 서당교육의 양면성」, 『한국근대초등교육 연구』, 교육과학사, 1998.
- 이진석, 「일제하 개량서당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5.
- 이항제, 「일제의 서당교육정책에 관한 고찰」,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3.
- 조성일, 「1920년대 민족교육의 성격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 차석기, 「일제하 서당의 민족주의교육」, 『사대논집』 제1집,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1976.

◆ 其他資料

- 강정마을회, 『강정 향토지』, 1996.
- 고성리향토지편찬위원회, 『고성리지』, 1993.
- 광령1리, 『광령약자』, 1990.
- 김문규, 『조천읍지』, 1991.

김봉옥, 『고내리지』, 1980.
김행옥, 『증보 납읍향사』, 1984.
박수양, 『김녕리 향토지』, 1986.
박용후, 『최남의 향도 모슬포』, 1990.
부영성, 『구좌읍지』, 1986.
서귀포시 월평동, 『월평마을』, 1992.
수산리, 『수산리지』, 1994.
연화친목회, 『연동향토사』, 1986.
온평리, 『온평리지』, 1991.
용당리향토지편찬위원회, 『용당리 향토지』, 1991.
우도지편찬위원회, 『우도지』, 1996.
위미신용형통조합, 『위미리지』, 1991.
조수리향토사편집위원회, 『조수리 향토사』, 1988.
종달리, 『地尾의 맥 -종달리지-』, 1987.
중문마을회, 『불란지야 불싸지라』, 1996.
판포리향토지발행추진위원회, 『판포리지』, 1995.
평대리, 『평대리』, 1990.
화북동운영위원회, 『화북동 향토지』, 1991.

<Abstract>

**The studied of Improved-Seodang in Jeju
under the rule of Japanese imperialism**

Jung, Sun-young

Major in History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Gwon, In-hyeok

It didn't hand exactly down, the Seodang education institution was made, and be form . But it's been charging for the good of development as a traditional elementary school before modern school has developed.

For spreads of education modern the 19th century, it was especially changed due to the colonization of Korea. It wasn't only form but also contents.

They were categorized to the traditional SeoDang which kept traditional form and the improved Seodang that adapted itself to modern style.

Generally the improved Seodang in Jeju, education facilities were closed according to local circumstances, or were built to avoid oppression when its establishment was difficult. And if needed education facilities were built.

The most of the improved Seodang in Jeju were built the initiative by themselves and were operated together.

The improved Seodang introduced subject of modern education, and

teachers who studied to national education. It rendered great service to a crusade against illiteracy and the upsurging of national consciousness.

Specially, the improved Seodang took charge of secondary elementary education system. It would be a great opportunity to study for the poor common people when educational facilities were insufficient, and compulsory education wasn't able to carried out.

The improved Seodang play an important part of elementary education to increase suddenly the students, japanese government was given out that would clamp down to Seodang.

The Seodang policy of the Japanese government progressed toward "The carrot and the stick". Basically It was to carry out the education policy of a colony.

Oppression Increased that the nationalism Seodang , or was considered ta disturbance worked to colony educational policy, but let you supported expenses to school that was the colonialism Seodang.

So it lost its education fuction for Korean people, it degraded to the assimilate way (They educated Korean to Japanese who were loyalty and kind) that was same with public school.

Also Japanese imperialism controlled a curriculum, and the improved Seodang was reformed to the public school by japanese government.

In Jeju, comparatively ,there was a lot of the elementary education built to stand on the improved Seodang a period of Japanese imperialism.

The improved Seodang was as a root of colonization, it was converted and was distorted.

But, on the one hand, It became basis in undercurrents of Jeju education.